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조세현

조세현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2008 년 2 월 25 일

동아시아아나키즘그반역의역사, 책세상

kr.theanarchistlibrary.org

2008 년 2 월 25 일

차례

책을쓰게된동기	3
들어가는말	5
제 1 장일본: 천황제와군국주의에대한비판그리고노동운동	8
제 2 장중국: 군주제와군벌정부에대한저항그리고신문화운동	27
제 3 장한국: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아나키즘	45
제 4 장아나·볼논쟁과아나키스트운동의쇠퇴	61
맺는말	69
더읽어야할자료들	71

쉬산광徐善廣·리우지안핑柳劍平, 『中国無政府主義史』 (호북인민출판사, 1989)

뤄쩌路哲, 『中國無政府主義史稿』 (북건인민출판사, 1990)

탕庭芬, 『中國無政府主義研究』 (법률출판사, 1991)

장준蔣俊·리싱즈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산둥인민출판사, 1991)

다마가와노부아키玉川信明, 『中国の黒い旗』 (晶文社, 1981)

사가다카시嵯峨隆, 『近代中国アナキズムの研究』 (研文出版, 1994)

Scalapino, R.A./Yu, G.T.,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Berkeley:Berkeley Univ. Press. 1961)

Zarrow, Peter.,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1)

Dirlik, Arif.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 California Univ. Press, 1991)

Krebs, Edward S. Shifu, Soul of Chinese Anarchism (Rowman & Littlefield, 1998)

에서이책은도움이된다. 비록논문몇편을모아놓은것이어서전체적인흐름을읽기에는조금부족하지만, 그나마중국아나키즘에관해현재단행본형태로출판된 유일한책일것이다.

타마가와노부아키玉川信明, 『아나키즘』 (오월, 1991)

만화의형식을빌려아나키즘을간단명료하게설명한책이다. 타마가와노부아키는 『중국의흑기黑旗』 와같은아나키즘연구서를펴낸작가로, 여기에서는아나키즘의역사부터현대의아나키즘에이르기까지독자들이궁금해할만한내용들을간추려소개하고있다.

〈21세기자유아나키즘〉, 「한겨레 21」 (제 279 호), 1999 년 10 월 21 일

21세기자유아나키즘이라는주제로일곱편의기사가실려있다. 한국의아나키즘역사와프랑스의아나키스트운동의사례등을소개하고, 현대사회에나타나는아나키즘의경향을진단하고있다. 또한이문창, 구승희등과의인터뷰를통해아나키즘과공동체운동, 에코아나키즘에대한소개도담고있다. 영향력있는주간지에서아나키즘을주제로특집이만들어졌다는점에서이사상이 21 세기의새로운화두로떠오르고있다는것을실감할수있다.

<http://dwardmac.pitzer.edu/anarchist-archives>

Anarchy Archives

아나키즘의역사와이론에관한문서참고로, 저명한외국아나키스트의전기및연구성과는물론그들의저작까지도볼수있다는일종의아나키스트도서관. 이사이트를통하면유명한국외의아나키즘관련기관및단체와연결이가능하다.

<http://www.feocities.com/capitohill/1931/links.html>

Other Anarchist Web-pages

각종아나키즘관련사이트가주제별로정리되어있고, 다시주제별로분류된목록을찾아들어가면더욱상세한내용들을찾아볼수있는아나키즘맵.

기타도움이되는책들

일본이나중국아나키스트운동에관한본격적인한글연구서는필자가아는바로는거의없다. 이지역의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지식을좀더얻으려면어쩔수없이외국어로된원문을읽어야한다. 아래의몇권의책이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소개한다.

고마츠류지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青木書店, 1972)

곤도겐지近藤憲二, 『一無政府主義者の回想』 [平凡社, 1972(제 2 판)]

아키야마기요시秋山清, 『日本の反逆思想-無政府主義運動小史』 (現代思潮社, 1968)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 第 1 編 [(黒色戦線社, 1982(제 2 판)]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 第 2 編 [(黒色戦線社, 1979(제 1 판)]

하기와라신타로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책을쓰게된동기

언어학자이면서아나키스트인노엄츨스키 (Noam Chomsky) 는“아무도아나키즘 Anarchism 이란용어를독점할수없다.”는말을남겼다. 그런데하루하루고된삶이여가는우리들에게‘아나키즘’이라는단어는어떤느낌을줄까. 조금은음울한표정으로역사의급류를헤쳐가야하는비운의운명을안고살아간극소수의지식인들만이독점할수있는말이라고생각하지는않을까. 이렇게인식하게된데는아나키즘을‘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라는다소과격한말로번역한것도한몫을할것이다. 아나키즘이정부나국가에대한반대의의미를포함하고있기는하지만, 무정부주의라는말은아나키즘의한가지특성만을보여줄뿐이다. 심지어어떤극소수아나키스트들은아나키즘속에과연‘무정부’같은요소가들어있는지조차의심하기도한다.

그렇다면아나키즘이란무엇인가. 그것은한마디로정의할수없다. 마치빛이프리즘을통과하면여러가지색깔을보여주는것과같다. 아나키즘은여러가지사상들이복잡하게결합하여이루어진것이므로, 하나의체계로쉽게정리할수는없다. 심지어어떤연구자는아나키즘을이론이전에선념과감정의대상으로연구해야할특수한사상이라고까지한다. 그래서인지역사상많은아나키스트나연구자들이아나키즘에대한정의를나름대로내리고있지만, 아직까지도모두공감할수있는명쾌한대답은없다. 아나키즘이라는빛의파장이이렇게넓은것이라면, 차가운침소리를내며달리는전철을타고가다문득대기업과국가권력의힘에대해알수없는저항감을느끼는우리들모두가아나키스트는아닐까. 어쩌면아나키즘이란우리가살면서느끼는자유에대한열망그자체일지도모른다.

내가동아시아의아나키즘을쓰게된것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극적인삶을알아보고싶은충동때문이다. 이것은내가아나키즘에처음흥미를느끼게된이유이기도하다. “나의양심은나의것이고, 나의정 의는나의것이고, 나의자유는최고의자유”라고선언했던역설의명수푸르동 (Pierre-Joseph Proudhon), 자유에대한열정을안고“파괴는새로운창조”라면서바리케이드위에서반역을꿈꾸던바쿠닌 (Mikhail Alexandrovich Bakunin), 민중은“권력에쉽게굴복하지만그렇다고권력을송배하지는않는다.”며민중을무한히신뢰하고사랑했던크로포트킨 (Pyotr Alexeyevich Kropotkin) 등우리에게잘알려진서양아나키스트들의삶은한결같이매우열정적이다. 이런모습을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에게서도찾아그것을독자에게소개하고싶었다. 사형수의신분에도불구하고죽음을두려워하기보다는동료를먼저격정했던고토쿠슈수이 (幸徳秋水), 폐결핵에걸려치료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육식이인간의폭력성을부추킨다고믿어채식을고

집하다절명한스푸(師復), 일제의침략에맞서비타협적인행동으로일관하다형무소의차가운바닥에서죽어간신채호(申采浩) 등이그러한사례일것이다.

그리고아나키스트개인의인간적인매력을넘어, 우리가살고있는동아시아의근대화과정에서그들이추구한사상과행동이갖는역사적중요성을짚어보고싶었다. 나는오래전부터중국근대아나키즘에관심이많았다. 그리고중국의사례를연구하는과정에서아나키즘이결코시대의이단이나나라당시역사적으로요구된사상이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것은일본이나한인아나키스트의경우도예외는아닌듯싶다. 앞서언급하고토쿠스이의제국주의에대한저항, 스푸의전통에대한비판, 신채호의민족독립을위한민중해방의논리등은모두아나키즘에뿌리를둔사상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들은동아시아근대사상사에서가장중요한주제들과맞닿아있다. 여기서우리는동아시아사회에아나키즘이수용되어한때광범위한세력을형성했다는사실이단순한우연의산물이아니라, 동아시아근대사회내부의절박한시대적요청에의한것이라는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아나키즘이우리에게주는현재적의미를헤아리는것이이글의마지막목적이다. 사람들은아나키스트를풍차를향해돌진하는돈키호테에비유하곤하지만실제아나키스트들은대체로고결한인격의소유자였다. 그들은세상을움직이는것은이름없이역사의저편으로사라져버린헌신적이며용기있는수많은사람들때문이라고믿었다. 그리고그들의이러한낙천적인삶의이면에는개인과사회에대한진지한고민과날카로운성찰도담겨있다. 인간에대한믿음과권력에대한그들의반대는도덕적가치기준이혼란한현재의우리들에게양심의소리에귀기울일것을가르쳐준다. 뿐만아니라아나키즘은개인문제뿐만아니라현대사회문제의해결에도적지않은영감을줄것이라기대한다. 냉전체제의해체와전세계의자본주의화는우리에게민족과국경을넘어서는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고있다. 그런의미에서도인종과지역을넘어서아나키즘의국제적연대정신은재해석의여지가있는것이다.

덧붙이자면, 일본·중국·한국의아나키즘에대한과거의연구는주로민족이나국가의틀에제한해그운동을정리함으로써아나키스트의국제주의를이해하기에무척곤란한점이많았다. 이런이유에서나는동아시아라는좀더넓은범주를가지고아나키스트운동을비교, 정리해아나키즘을실감나게이해하고자했다. 그러나막상글을맺고보니아쉬움이많이남는다. 가령, 아나키즘운동이왜식별됐는가는문제는무척중요하지만이책에서는간략하게다루었을뿐이다. 그럼에도아나키스트들의꿈과희망, 그리고그들의좌절의과정을반추함으로써우리들의삶과역사에대한이해를넓혀보려했던필자의의도가독자들에게다소의공감이라도얻을수있다면그저감사할따름이다.

이소책자의많은내용들은일일이주를달지는않았으나각지역(특히일본과한국) 아나키즘연구자의연구성과의덕을크게보고있다. 주로도움을 많이받은글로는고마츠류지(小松隆二, 일본), 곤도겐지(近藤憲二, 일본), 장준(蔣俊, 중국), Dirlík(미국), 사가다카시(嵯峨隆), 오장환(한국), 이호룡(한국) 등이있

『한국아나키즘운동사』가출판된후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다룬단편적인논문들이여러편나오다가 90 년대에들어와젊은연구자들이괄목할만한발전을보여준다. 바로이책이대표적인저작이다. 저자는프랑스에유학해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 몇년동안이학위논문을다듬어단행본으로출간했다. 기본적으로학술서적이지만시기별·지역별로아나키즘운동을깔끔하게정리하고있어개설서의성격도갖추고있다.

우드코크, 『아나키즘(사상편)』(형설출판사, 1981)

우드코크, 『아나키즘(운동편)』(형설출판사, 1981)

국내에번역된대표적인아나키즘이론서를들라면아마도이두권의책을들수있을것이다. 사상편에서는고드윈, 슈티르너,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등대표적인서구아나키스트들의사상과활동을다루고, 운동편에서는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러시아등서구의아나키즘운동을나라별로정리하고있다. 이책과함께, 하기락이옮긴다니엘게렐의 『아나키즘』(중문출판사, 1985)을읽는다면서양아나키즘의윤곽은그릴수있을것이다. 참고로국내에서양아나키즘연구자로는이종훈, 김은석, 방영준등이있다.

이호룡, 〈한국인의아나키즘수용과전개〉(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최근에나온그의학위논문은주목할만하다. 아직출판되지않았으나풍부한자료를바탕으로사상사의관점에서한인아나키즘운동을상세히다루고있다. 그는한국에아나키즘이수용된시기는 1920 년대전이며, 한국근대사상사에서아나키즘은민족주의, 공산주의와함께제 3 의사상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고주장한다. 앞의오장환의저서와함께한국아나키즘연구의현수준을보여주고있다. 또한그의 〈아나키즘〉[『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1999)]이란글은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한편의논문으로정리, 요약한것이다. 한국의사례를깔끔하게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자유사회운동연구회, 『아나키즘연구』창간호(국민문화연구소출판부, 1995)

서울지역아나키즘연구자들이활동하는국민문화연구소에서출판한아나키즘논문집이다. 이가운데주목할만한글은김성국의 〈아나키스트신채호의시론적재인식〉과존크럼의 〈동아시아에있어서아나키즘과민족주의〉2 편이다. 김성국은신채호의민족주의와아나키즘을대립시켜이해하는기존의해석방법에이의의를제기하고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밀접한관련성에주목한다(『아나키·환경·공동체』에도이논문을일부수정해실었다). 그리고크럼의글은아마도동아시아라는범주를가지고아나키스트운동을다룬유일한글이아닐까싶다. 그는한국아나키스트운동이이나치계민족주의적인성격으로말미암아아나키즘본래의모습에서크게일탈했다고비판한다.

조광수, 『중국의아나키즘』(신지서원, 1998)

중국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연구는외국뿐아니라국내에서도활발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일반독자가쉽게구해읽을수있는책은드물다. 그런이유

다. 마루야마마츠유키는저명한중국근현대사연구자로전통사상과근대화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 아나키즘의문제도그런맥락에서살피고있다. 만약류스페이(천의파)의아나키즘에관심이있다면이책을권하고싶다. 한편윤희이천성림은류스페이의사상을다룬논문몇편을발표했는데, 그녀의학위논문〈신해혁명시기국수학파에관한연구〉(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의후반부에일부가실려있다. 류스페이의국수주의에초점을맞춘논문이지만그의아나키즘을이해하는데도도움이된다.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형설출판사, 1978)
한국의아나키즘에관한대표적인고전으로우선이책을읽을수있다. 이운동사는한인아나키스트들이직접편찬한것으로자료집의성격도된다. 내용가운데일부는신뢰도가떨어지고다소감정적인문체로되어있지만, 그래도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이해하려면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 운동사의전반부에는일본과중국
의아나키즘을소개하고있어서도움이된다. 그밖에하기락의『탈환: 백성의자기해방의지』(형설출판사, 1985)는앞의책과같은선상에있는것으로, 주로해방이후시기를다루고있다.

박제균, 〈중국‘파리그룹’(1907~1921)의무정부주의사상과실천〉(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중국의신세기파(파리그룹)에대한국내연구로는박제균의연구가대표적이다. 그는학술지에이와관련한논문을몇편발표했다. 학위논문에이런내용이잘반영되어있다. 논문에서작자는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신세기파의사상과활동을꼼꼼히파헤치고있으며, 전통사상과아나키즘의관련성, 당시여러사회사조와아나키즘의관련성, 중국적무정부주의의특성등에주목하여글을전개하고있다.

박환, 〈1920년대재중국인의무정부주의운동과‘탈환’의간행〉,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일조각, 1991)

박환, 〈남화항인청년연맹의결성과그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 1992)

국내학계에서비교적일찍한인아나키스트운동에주목한연구자로박환과오장환을들수있다. 박환은아직까지이주제를다룬독립된저작을내지는않았지만여기에소개한 2 편의논문처럼중국내한인아나키스트운동의몇가지사례들을 뽑아상세하게분석했다. 그의글들은대략윤곽만알려졌던역사사실들을구체화시켜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방영준·김경복외, 〈아나키즘과생태주의〉, 『오늘의문제비평』 1998년 겨울호(세종출판사)

현대의아나키즘문제를다룬 5 편의논문을실었다. 아나키즘의현재성, 생태아나키즘과문학, 아나키즘의미학, 생태아나키즘과미술, 에코아나키즘등을주제로하고있는데, 주로역사적관점에서아나키즘을다루던방식에서벗어나현재의문제를다루었다.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국학자료원, 1998)

다. 그리고본문가운데담겨있는몇가지관점들은평소필자가아나키즘과관련해동학(同學)들과토론하는과정에서얻은것들도적지않다. 그들모두에게고마움을전하며너그러운이해도구한다. 더욱이이글이빛을보게해준것은책세상편집부의오랜인내심덕분아닌가싶다. 동학이나선학(先學)들의많은혜택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글가운데나의무지와독단으로말미암아잘못된내용들이나검손하지못한주장들이있을것이다. 이런문제점은독자들의도움으로빠른시일내에고쳐지길바란다. 마지막으로최근주변의많은어려움에도 불구하고곳곳함을잃지않고게시는부모님께삼가이글을올린다.

들어가는말

서양의고전적아나키즘은 19 세기중반부터 20 세기전반까지구미(歐美)사회에서풍미했으며, 주로과학과진화, 이성과합리의이름을빌려서(혹은그반대의입장에서서) 강권적인권위와권력들 - 예를들어, 국가나정부, 종교나교회, 군주나부르주아, 또는가부장제의위계질서등 - 을비판하고부정했다. 그들은이런권위와권력들은불필요할뿐아니라인간의자유를억압하는것이라고주장한점에서공통의색깔을가질수있었다. 그런데이런고전적아나키즘에대해그비판자들은이사상이정부와국가에대한철저한파괴만을주장하면서허무주의와유사하다고보았고, 이들이암살활동에적극참여한사실을들어테러리즘과동일시하기도했다. 나아가모든권위를부정한다는점에주목해아나키즘은한낱유토피아사상의하나에불과하다고규정했다.

하지만이런지적들은아나키스트의도덕적인충동이나건설에대한열정을간과하거나무시하고, 여러정치파벌들이흔히채용하는테러의방법을그들만의책임으로뒤집어씌우려는책략에서기인한측면이있다. 어쩌면아나키즘의공상성역시그사상이현실사회에서충분히실험되지않았다는사실에기초해설명한것인지도모른다. 물론아나키스트들내부에서조차적지않은이견이존재했기때문에그런오해를증폭시킨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제는아나키즘의부정적인측면보다는그들의사상에내재되어있던긍정적인요소들을탐색하는것이우리에게좀더생산적인활동이아닐까.

널리알려진바와같이, 역사적으로아나키스트는마르크시스트, 볼셰비키, 마오이스트와같은사회주의의여러계파들과함께활동했으나대부분그들에게역물리고그에의해제거되었다. 왜냐하면아나키즘이비록공산주의와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하나였지만 공산당과 같은 전위조직의 존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함으로써 공산주의자와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아나키스트의 일부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극소화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접근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은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회의 근본모순을 뿌리뽑으려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와도 어우러질 수 없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국민국가를 화두로 삼는 20세기 국제사회에서 정치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은 보통 스페인 내전을 전후하여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다시금 아나키즘의 부활을 점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구도가 해체되고 제 3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자본주의의되는 중앙집권주의에 대항하는 지방분권주의, 강권적 국가를 대체하는 지역공동체 추구, 대의제 민주주의를 불신하며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은 비록 아나키즘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무척 친근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역시, 아나키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따지기에 다소 모호할지라도 그 사유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나키즘은 고전적 아나키즘과는 달리 그 범위가 넓어지고 다른 사회운동과의 결합도 서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아나키즘은 고전적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무정부나 노동조합과 같은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정보산업 사회에 걸맞은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는 아나키즘의 환경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해 이를 발전시켜 환경운동이나 생태공동체 운동을 펼치면서 에코아나키즘 Eco-Anarchism 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냈다. 다른 일부는 첨단 기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도구의 확산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 전 세계 차원의 자유로운 인간 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열망한다. 또 다른 아나키스트들은 기존의 학교 제도를 부정하고 이를 대체하는 자유 학교 또는 대안 학교라 불리는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동과 지식의 결합이라는 아나키즘의 이상적인 교육관을 다시 한번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그 밖에도 과거의 무신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적·초월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여성 문제와 관련해 아나르카페미니즘 Anarcha-feminism 을 제창하면서 동성애와 같은 사회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의 아나키스트는 고전적 아나키즘에서 강조했던 몇 가지 원칙들을 과감히 폐기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나키즘적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려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나키즘의 발빠른 변신은 어쩌면 그 사상에 내재된 고유의 탄력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시도가

비록 현실 문제에 적절한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을 고집한 것이 운동의 패인이라고 종종 지적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전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던진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읽어야 할 자료들

강만길 역음, 『신채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단재 신채호 기념 사업회 역음, 『단재 신채호의 민족사관』 (단재 신채호 기념 사업회, 1980) 등

과거 한인 아나키스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채호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그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을 다룬 글은 비교적 많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문집으로 이두권을 소개한다. 1~2편을 제외하면 신채호를 민족주의자로 조망하는 글들이다. 현재 신채호 외에도 박열·유자명·이회영·김종진·정화암·하기락·최갑룡 등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회고록이나 전기들도 출판되어 있어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구승회·김성국 외, 『아나키·환경·공동체』 (모색, 1995)

왜 다시 아나키즘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7명의 국내 아나키즘 연구자들이 쓴 10편의 논문을 실었다. 국내 최초의 아나키즘 연구서라는 의미 외에도 국내 학자들이 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데서도 의미 있는 책이다. 김성국의 아나키즘과 신사회 운동, 방영준의 아나키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주원덕의 푸르동 연구, 이종훈의 바쿠닌 연구, 구승회의 에코아나키즘, 박홍규의 아나키즘과 자유교육, 박연규의 아나키즘 미학과 상징 등이 그것이다. 필자들은 대부분 신진 학자이며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아나키즘 연구회 회원들이다.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 (다운샘, 1999)

한국 아나키즘 시를 연구한 작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한 논문 몇 편을 모아 만든 책이다. 신채호, 권구현, 김화산, 신동엽 등의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을 작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마루야마 마츠유키, 『중국 근대의 혁명 사상』 (예전사, 1989)

이 책의 전반부에 실린 중국 아나키즘에 대한 몇 편의 글 (전통 사상과 무정부주의, 유사배전기, 민족주의·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를 다룬 논문)은 참고할 만하

반전운동을 전개하며,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 연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런 나름대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나키즘은 대체로 서유럽과 비슷한 길을 걷는다. 즉 일본 사회가 서유럽의 자본주의를 모방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자, 아나키스트들도 이에 대항해 반자본·반제노리를 가지고 노동운동(총동맹파업)을 통한 부르주아계급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반식민지 또는 식민지 상황에 놓인 중국과 한국은 상황이 달랐다.

중국에서 혁명가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처음 직면한 정치권력은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였다. 따라서 이들은 군주제를 타도하는, 이른바 배황혁명을 사회혁명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황제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내실을 갖추기도 전에 곧바로 군벌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절망한 아나키스트들은 중국 사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치혁명을 넘어서 문화혁명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여기서는 도덕운동이나 교육운동을 사회혁명의 주요한 방법으로 채택했다. 물론 중국에서 점차 자본주의가 발달하자 그들 역시 눈을 돌려 노동자와 농민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한편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주권조차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운동의 시작단계부터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제 아래 민족해방운동의 한 수단으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들의 운동은 처음부터 민족주의 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치지향의 색채도 비교적 농후했다. 또한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 아나키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가 이론을 중시했다면, 재중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실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대중운동보다는 주로 테러와 파괴 같은 폭력수단에 의존해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라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은 기본 정신에서는 서양의 아나키즘과 일치한다. 즉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나 볼셰비키처럼 일부 엘리트의 지도나 일부 정치집단의 음모로는 이상사회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민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를 통한 혁명이나 공산당과 같은 전위조직을 부정하고, 오직 민중 스스로 테러와 총파업, 또는 교육운동이나 이상촌 건설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치혁명을 부정하고 사회혁명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사회혁명이란 정치혁명은 물론 경제혁명과 문화혁명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변혁도 포함한다. 본래 아나키스트는 권위에 대항할 때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방위의 투쟁을 추구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 고양과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민중연대를 주장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단지 하나의 실험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정당·정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아나키즘적 상상력’은 21세기 우리의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값진 유산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소책자는 최근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흐름에 발맞추어 이 사회사상에 독자들이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현대의 아나키즘이 아니라 역사상의 아나키즘 문제이다. 그것도 동아시아의 세 나라, 즉 일본·중국·한국(여기서 일단 베트남이나 타이완과 같은 지역은 다루지 않는다)의 아나키즘에 한정해 그 사상과 운동을 다루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세 나라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남아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마도 아나키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이 운동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자료의 수집이 활발해지고 나라별로 아나키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 지금은 이미 3국 모두 자신들의 아나키스트 운동에 관한 몇 권의 연구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글은 바로 그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을 좀더 입체적으로 기술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아나키즘의 출발점은 대략 어디쯤일까? 서양 사회의 경우 고드윈(William Godwin), 슈티르너(Max Stirner),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Count Lev Nikolayevich Tolstoy)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상적 계보가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아시아 사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지적 계보조차 분명하지 않다. 단지 연구자들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서양 아나키스트 운동이 각 나라의 신문이나 잡지에 일부 소개되었고, 20세기 초반에 적지 않은 아나키즘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동아시아 사회에 아나키스트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나키즘의 수용 과정은 사회주의의 수용 과정과 일치하며, 아나키즘이 일정한 사회운동 세력을 형성한 대략의 시점은 1906년 또는 1907년쯤이라고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20세기 전반기를 풍미했던 세 사람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가 등장한다. 일본의 고토쿠슈스이¹, 중국의 스푸², 한국의 신채호³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주인공인 이유는 우선 동아시아 세 나라, 즉 일본·중국·한국의 대표적 인 아나키스트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이시카와 산시로(石川三四郎), 이와사사쿠타로(岩佐作太郎)와 같은 저명한 아나키스트가 있고, 중국에는 리스펑(李石曾), 류스페이(劉師培), 어우성바이(區聲白), 황링수양(黃凌霜), 빠진(巴金)과 같은 걸출한 아나키스트가 있으며, 또한 한국에도 유자명(柳子明), 이정규(李丁奎), 정화암(鄭華岩), 박열(朴烈) 등과 같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앞의세인물을중심으로글을전개하기로한것은그들의행적이나름대로동아시아나키즘의독특한성격을적절히보여준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재미있게도고토쿠슈이는 1900 년대에, 스푸는 1910 년대에, 신채호는 1920 년대에주로활동한인물이어서대략시간의흐름에따라이들을등장시켜글을전개하는방식을취했다. 아울러오스기사카에, 리스젠, 류스페이, 박열등도글가운데제법언급되었다. 이들은대부분비운의죽음을맞이한사람들이다. (그런데여기서이들이활동하던시기가해당지역이나키즘의전성시기와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은먼저지적해두고자한다.)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은세나라모두대략 1920 년대를전후해가장활발했다고보는것이적절할것이기때문이다.

1920 년대를전후해전성기를누리던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은곧이어새로운경쟁자(볼셰비키) 의도전을받았다. 이들은한때정치권력의도전에맞서기위해연합전선을구축하기도했지만그것은그리길지않았다. 그들은자유연합이나중앙집권이나의문제를놓고아나키즘·볼셰비즘논쟁이일어나면서서로갈라섰다. 반드시이논쟁때문에아나키즘운동이몰락했다고보는힘들지만, 이논쟁을전후해그운동이급격히약화된것은사실이다. 이른바아나·볼논쟁의주요내용은표면상으로는서양과유사하지만각지역과국가에따라나름대로독특한양상을띠고있었다. 이글의마지막에서는이세나라에서일어났던아나·볼논쟁을소개하면서아나키스트운동의쇠퇴과정을정리해보았다.

제 1 장일본: 천황제와군국주의에대한비판그리고노동운동

1. 마르크시스트에서아나키스트로 - 고토쿠슈이

일본이자본주의가채발달하기도전인 19 세기후반에이미서구의사회주의를들여왔다는사실은매우흥미롭다. 70 년대초에‘코뮌리즘’이나‘소셜리즘’이란용어가등장했고, 80 년대에는사회주의와공산주의를소개하는책자도발행됐다. 이현상은메이지정부가위로부터의근대화를주도하는과정에서사회주의에대한예방책을마련하기위해사회주의를부정적으로소개한것이다. 그리고유럽

그들이스스로조선의용대에참가하거나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같은군대를조직해항일전에참가하기시작했다.

당시한인아나키스트들이보여준이러한태도는사실상정부와국가의존재를인정한것이였다. 따라서일부아나키스트들은국민당에가입해항일전에참가했으며, 다른일부는공산당의민족통일전선에호응해공산군으로항일전에참가했다. 그들은이런방법으로일제에대한직접투쟁에나설수있었는데, 이런일탈적인행동은일본과중국의아나키스트에게서는찾아보기힘든현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그들은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사이에서자신의목소리를분명히내지못했다.⁸⁸

국내에서도 1930 년대이후아나키스트운동은일본의전시동원체제아래서크게위축되었다. 일제의살벌한탄압때문에사회주의단체는대부분지하로숨어들었고, 독서회정도만기여우명맥을유지했다. 20 년대후반에치열했던아나·볼투쟁역시 30 년대초반까지계속되었으나, 오히려일제에게탄압의필미를제공해양쪽모두에게막대한손실을입혔다. 1933 년국내아나키스트운동을재건하려는마지막시도도일본경찰의습격으로좌절되었다. 그후아나키스트들은간혹언론활동을펴기도했지만, 더이상역사의전면에부상하지는못했다.

맺는말

서양아나키즘의최고목표는개인이절대자유를향유할수있는이상사회를건설하는것이다. 따라서서양의아나키스트들은인간본성에서우러나오는양심의소리에따라자유를추구했으며, 이에방해가되는모든권위와권력에맞서싸웠다. 그들의눈에인류의자유를억압하는대표적인것은바로국가와정부였다.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도서양의아나키즘을받아들여자기나라의정치체제를분석하는과정에서이들과비슷한결론에이르렀다. 하지만그들은개인보다는사회문제에좀더많은관심을나타냈다는점에서서구와는조금다른면모를보인다. 그리고동아시아 3 국사이에도그들이처한상황에따라아나키즘의내용에약간의차이가나타난다. 아마도서구적근대와동아시아 3 국의전통이만나는과정에서빚어진현상일것이다.

일본의아나키스트들이부정하려는권력의대표는천황을중심으로한근대적인천황제였다. 따라서천황제를비판하는것은물론천황개인에대한테러또한멈추지않았다. 그리고일본이한반도와중국대륙을침략하는군국주의의길을걷자

록이 끈 것이다. 그러나 1928 년 토비의 공격으로 와해되었고, 화교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자 결국 운동을 포기했다.⁸⁵

셋째, 1928 년 6 월에 조직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연합체이다. 이 단체에는 중국·일본·한국·타이완·베트남·인도·필리핀 7 개국 대표 200 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 나라의 아나키스트들이 단결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유 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각 민족의 자주성과 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 연맹은 리스썩이 배후에서 지원했으며 기관지 「동방」을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⁸⁶

이러한 활동을 볼 때, 아나키스트들은 일부가 국민당에 가입함으로써 운동에 제약받기도 했으나, 그래도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활동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략 1929 년을 기점으로 장제스의 국민당이 극우 노선을 걷자 양자의 합작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사정이 급격히 변하면서 재중한 인 아나키스트의 지위도 많이 흔들렸다. 더구나 국민당과 공산당의 양대 구도로 정계가 개편되자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의 원로 아나키스트에게 크게 의지했으므로 그들의 활동에 적극 동참했고, 일부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그리고 1930 년대 들어서면서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화한인 연맹 南華韓人聯盟을 만들었다. 이 단체는 민족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급진적인 투쟁은 주목할 만하다. 20 년대 후반 신채호, 이정규, 이을규, 김종진 등이 잇달아 체포되거나 살해당하자, 유기석 같은 청년 아나키스트가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다.⁸⁷ 그들이 출간한 「남화통신」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조차 세계 혁명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남화한인 연맹은 주로 한중 연합 투쟁을 전개했는데, 몇 개의 테러 조직을 만들어 일제와 친일 본자를 응징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텐진 부두에서 일본 기선에 투탄, 텐진 일본 영사관에 투탄, 상하이 친일 정권의 왕징웨이 암살 기도, 주중국 일본 대사 암살 기도, 한인 주 구옥관 빈·옥승빈 형제 암살, 상하이 거류민 회부 회장이 용로 암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직이 이런 활동을 벌였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일제의 대륙 침략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던 30 년대 중반부터는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관점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연합한 민족 통일 전선에 반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현실 논리에 입각해 민족 전선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7 년에 재중한 인 아나키스트들이 결성한 조선 혁명 자연맹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연맹의 회원 가운데 유림(柳林)과 유자명 등은 혁명 과도기를 내세우며 임시 정부에 참가해 활동했다. 심지어 원칙적으로 군대를 부정하던

유학 지식인들이 늘면서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사회주의를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사상의 조속 성문제는 일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⁴ 중국에서도 아직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않았던 20 세기 초반에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유학생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때 사회주의는 유럽과 달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지배의 전제 군주제를 타도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 작용했다. 일본이 정부의 승인 아래 사회주의를 경계의 대상으로 소개했다면, 중국에서는 개명 인사들이 반체제를 위한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사회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구도에서 싹튼 것이 아니라 서학 西學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사회 내부의 필요와 맞물리면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여러 사회주의 파벌이 활동하는 가운데 아나키즘이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고, 중국에서는 아나키즘이 처음부터 가장 먼저 주도권을 쥐고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이처럼 사회주의든 아나키즘이든 서양의 근대 사상이 동아시아 사회에 들어와 전개된 방식은 출발부터 서유럽과 크게 달랐다. 그러므로 구미와 동아시아 사회에 같은 사상이 존재했다고 해서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동아시아 근대 사회의 국가 간 세력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청일 전쟁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 전쟁을 전후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 질서는 붕괴됐으며, 일본이 대표 주자가 되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청일 전쟁은 일본 정부가 추진한 메이지 유신과 청 왕조가 추진한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의 마지막 시험장이다.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근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정치·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었다. 거꾸로 중화 의식의 몰락을 경험한 중국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고, Kang Youwei(康有爲)와 같은 변법파가 등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일 전쟁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더욱 부추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청일 전쟁 후 일본 자본주의는 급격히 발전해 산업 자본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폐해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갖가지 투쟁을 벌였다.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등장했다. 1897 년에 사회 문제 연구회가 결성되어 노동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몇 개의 노동 조합도 결성됐다. 그리고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898 년에는 무라이 토모요시를 회장으로 하여가와 카미키요시, 가타야마 센, 고토쿠 슈스이, 니시카와 코지로 등이 사회주의 연구회를 만들었다. 1900 년에 이 연구회는 아베 이소오 회장이 이끄는 사회주의 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듯 노동 문제 또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단체가 조직과 해산을 반복하던 끝에 마침내 1901 년 5 월에는 사회주의 협회를 기초로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당은 아베 이소오, 가타야마 센, 가와카미키요시, 고토쿠 슈스이, 니시카와 코

지로, 기노시타나오에등 6 명의사회주의자가발기했으며, 평등주의, 평화주의, 보통선거, 계급제도의폐지등을주장했다. 하지만사회민주당은겨우하루만에정부의금지명령을받아해체되었다.⁵

비록사회주의정당을조직하는데는실패했지만, 정당에참여했던인물들은책을통해사회주의를널리알렸다. 니시카와코지로의 『사회당』과 『칼마르크스』, 아베이소오의 『사회문제해석법』과 『사회주의론』, 가타야마센의 『나의사회주의』, 고토쿠슈이의 『장광설長舌』과 『사회주의신수社會主義神髓』등이이때나온책들이다. 그밖에당시출판된무라이토모요시의 『사회주의』, 후쿠이준조의 『근세사회주의』, 게무야마센타로의 『근세무정부주의』와같은저작들도일본사회에서사회주의를보급하는데크게기여했다.⁶ 그들이소개한사회주의는체계적이지못하고잡다한내용을소개하는수준에머물렀지만, 초창기의이런현상은자연스러운것이다.

일본이사회주의를수용한과정을보면, 1902 년에서 1904 년사이에러시아의나로드니키운동과허무당활동을활발하게소개했다는점이눈길을끈다. 특히허무당과허무주의를소개한것은동아시아의아나키즘수용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아나키즘을처음접할무렵에는러시아에풍미하던테러리즘이나허무주의를아나키즘과거의같은의미로받아들였기때문이다. 그런데여기서기억해야할사실은, 허무당원이러시아의니힐리스트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라‘인민속으로’라는구호를만들어낸러시아의인민주의자들을충칭한다는점이다. 사실러시아인민주의자들의범주는폭넓다. 대체로그들은차르정권에맞서정치혁명을추구하기보다는농민의사회경제적해방을추구했던인물들이다. 이인민주의자들가운데바쿠닌파로분류할수있는아나키스트들도다수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번역과정에서허무당원을아나키스트와동일시한것은부분적인착오이긴하지만완전히틀린말은아니었다.

일본사회에서아나키스트의테러활동이소개된것은 19 세기말사회주의가처음들어온시기와일치한다. 그러나이들의활동을단순히외국의신기한사정을넘어진지한문제로인식하게된것은 20 세기에들어와서다. 일본인들이테러리즘에열광한것은아니지만허무당원들의활동은일본에게주하던외국인급진주의자들의호기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더구나이즈음일본에는러시아혁명가들(많은수가허무주의자들)이차르의압제를피해망명와서반체제활동을하고있었기에남의나라일로만여길수도없었다. 이들러시아인은중국인비롯한외국혁명가들에게폭탄제조법등을가르쳐주기도했다.

허무주의와허무당원이아나키즘과아나키스트와같은것이라는인상을준대표적인저작은 1902 년당시도쿄대학학생이던게무야마센타로가펴낸 『근세무정부주의』다. 이책은전편에서는러시아의허무주의를, 후편에서는구미여러나라의아나키즘을다룸으로써허무주의와아나키즘을같은맥락에서이해하도록만들었다. 이책은광범위하게유통되어사회적으로큰영향을미쳤다. 특히동아시아

중국아나키스트운동도이미 1924 년부터중요한변화를맞아했다. 중국공산당이쑨원의국민당과합작하는이른바‘국공합작’후에원로나나키스트의대표격인우즈후이, 리스쨥, 장징장, 차이위안페이등이모두국민당에가입하는이른바‘안국安國합작’(아나키스트와국민당의합작)이이루어졌다. 그들은여전히스스로아나키스트라고자부하면서국민혁명이란과도를거쳐아나키즘혁명로나아갈것을주장했다. 그들은「혁명주보」라는기관지를발간하고, 여기서나름대로‘분치分治합작론’또는‘전민全民혁명론’같은새로운이론을제기하며, 국민당의지원아래노동운동과농민운동에참여했다. 국민당에가입한우즈후이, 리스쨥등은국민당극우파의백색테러나불세비키의공격에대비하여중국과한인아나키스트를보호, 지원했다.

하지만원로나나키스트의정당참여는청년아나키스트에게큰충격을주었고, 그들의반발은만만치않았다. 이미스푸생전에우즈후이와정당참여문제를가지고논쟁했고, 이시기에는화린(華林), 선쥬지우(沈仲九)등청년아나키스트와우즈후이사이에도다시논쟁이일어났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상황이어려워지자적지않은청년아나키스트들이국민당에가입했고, 일부는공산주의자로전향해중국공산당에가입하기도했다. 하지만대다수아나키스트들은여전히신념을지키며아나키스트운동을전개했다.

1920 년대후반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일제의대륙침략과공산당의세력확대를저지하기위해동아시아여러나라의아나키스트들과국제적인연대를모색했다. 상하이노동대학건설, 푸젠성지역의농민자위운동,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조직등이대표적인활동이다. 그들의활동을간략하게정리해보자.

첫째, 상하이노동대학은노동운동의이론과훈련을쌍기위해만든대학이다. 우즈후이, 리스쨥, 차이위안페이등중국인아나키스트들이주도했으며, 특히선쥬지우, 우커강(吳克剛)같은청년아나키스트가실무를담당했다. 중국인외에도한인이정규, 이을규, 일본의이와사사쿠타로등이참여했다. 장제스(蔣介石)국민정부의지원과통제를받는대학이라는점에서이와사사쿠타로는처음에이대학을건설하는데반대했으나, 이정규등은아나키스트운동의확산을위해순수성에만집착하지말고인식을전환하자는명분을가지고이일을추진했다. 그들은일본의이시카와산시로나프랑스인르클뤼같은저명한아나키스트를초청할계획도세웠다. 상하이노동대학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적연대의실험장이었으며, 교육으로아나키즘사회를건설하자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오랜집념을담은뜻깊은공간이기도했다.⁸⁴

둘째, 푸젠성농민자위운동은농민운동의하나로, 우크라이나의마호노식무장자위조직과같은단체를만들기위해서도한것이다. 상하이노동대학에참여한사람들중일부가이농민운동에도참여했다. 이곳에서중국인과한인아나키스트들은토비土匪와공산주의자에게서농민을보호하기위해농촌청년을조직, 훈련했다. 이들이항토조직과무장자위조직을만들고, 각종자치자활운동을추진하고

강조했다. 그들은계급문제를해결한다고해서기존권력의복잡한그물망이완전히해체되지는않을것이라고믿었다. 이런지적들은아나키스트들이제시한이상주의적전망이오늘날에도여전히유효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⁸³

2. 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의쇠퇴

일본의아나키스트운동은오스기사카에의죽음을기점으로침체기로들어서지만, 그의희생위에건설된노동조합운동은오랫동안세력을유지했다. 1926년에는국가의탄압에맞서기위해최초의전국조직인흑색청년연맹과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을구성했다. 하지만내부의견을조정하는데실패해 1928년에는순수아나키즘을고수하는그룹과생디칼리즘을주장하는그룹으로분열했다. 1931년만주사변을기점으로당국의대대적인탄압이시작되자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더구나파시즘에빠진일본정부는중국본토침략과전쟁이란극한상황으로치달았고, 이에저항하는민족주의열풍이불었다. 따라서국가주의와민족주의에반대하던일본아나키스트의지위는국내외적으로크게악화되었다.

이런상황에서일부아나키스트들은강력한지도력부재로인해아나키스트운동이침체했다고보고, 중앙집권적인조직을건설하려고했다. 그결과 1933년말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결성되었고, 얼마지나지않은 1934년 1월에는이조직을개편해일본무정부공산당이결성되었다. 그들은중앙집권적조직론과민중독재를내세웠다. 이것은중앙집권적조직을결성하고, 그조직의지도아래정치투쟁을전개해정치권력을장악한다는것과민중들이이상사회를건설할동안반혁명세력의반격을분쇄하기위해민중독재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비록자유발의와자유토론, 의결에서의만장일치제를내세우고, 자율성의원칙에따라다른단체에게강요하지않는다는규정이있지만, 앞의논리는볼셰비키의당조직건설과프롤레타리아독재를연상하게하는것으로, 아나키즘정신에서크게일탈한것이었다.

한편재일한인아나키스트운동도 30년대에들어와서일제의통제정책으로말미암아크게위축되었다. 전쟁으로한인노동자의수가증가하면서한때동흥東興노동동맹같은노동단체의활동이두드러지기도했다. 하지만일본정부의좌파탄압조치로말미암아한인아나키스트가발간한「흑색신문」이폐간되는등시련은계속되었다. 결국여러노동조합단체들이차례로해체되었다. 그럼에도아나키스트들은일본의군국주의와애국주의논리를비판하면서아나키스트의자유연합과아나키즘의민중화를끊임없이외쳤다. 또한한인아나키스트들가운데상당수가일본무정부공산당에가입해활동했다. 그들은자신들의견해가볼셰비키의중앙집권주의나프롤레타리아독재와는다르다고주장했지만이미호소력을크게떨어졌다.

사회에서아나키즘을‘무정부주의’라고부르게된것도이책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⁷ 센타로이전에도이용어를사용한에가있기는하지만, 이책을통해아나키즘이무정부주의란번역어로정착해대중화된것이다. 이용어는중국이나한국에도그대로수용되어동아시아 3국에서널리쓰이게된다.

게우야마센타로는본디아나키즘을비판하기위해서『근세무정부주의』를준비했다고한다. 하지만역설적이게도이책으로말미암아일본인들은물론일본에거주하던중국인들(어쩌면한국인들도포함될지모른다) 이아나키즘에큰관심을가지게되었다. 그런데무정부주의라는용어는머지않아동아시아사회에서아나키즘에대한잘못된인상을심어적지않은문제를초래하기도했다. 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가유통된다음에는아나키즘이허무주의자의암살이나폭동과동일시되면서원래의의미가심하게왜곡되었을뿐만아니라, 모든정부나조직을부정하는혼란과폭력의대명사가된것이다.⁸

일본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자들가운데가장대표적인사람은가타야마센과고토쿠슈스이다. 가타야마센은기독교의인도주의입장에서출발해사회주의자로변모한이른바기독교사회주의자다. 그는노동조합운동에투신해 1897년일본최초의근대적노동조합을만들기도했다. 그후사회주의연구회와사회민주당을결성할때에도핵심적인역할을했다. 1903년에는「노동세계」에발표한논문을모아『나의사회주의』라는책을펴냈다. 여기서그는의회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를주장했는데, 이주장이메이지사회주의의한흐름을형성한다.

비극적인죽음으로일본인들에게깊은인상을남긴고토쿠슈스이는동아시아아나키즘을서술할때가장먼저얘기해야하는인물이다. 메이지시대의가장대표적인사회주의자이자아나키스트이기때문이다. 가타야마센이있다고는하지만, 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는고토쿠슈스이를중심으로전개되었고, 그의죽음으로일단락되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고토쿠슈스이의삶의궤적은일본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와아나키즘의전개상황을그대로보여준다. 특히그가마르크시스트(정확히얘기하면사회민주당주의자가적당하다) 에서아나키스트로전향한것은일본사회주의운동사는물론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사의한페이지를장식하는중대한사건이다.

고토쿠슈스이(원래이름은고토쿠덴지로)는 1871년어느지방현의약재상가정에서태어났다. 태어난지얼마지나지않아부친이별세하고불우한어린시절을보냈지만한학을열심히공부해중국고전에상당한교양을쌓았다. 17세가되던 1887년에는상경해자유민권운동에참가함으로써서양부르주아사상의저작을접했다. 그는나카에초민과같은자유당좌파의전통을이어받아이상사회의꿈을키워나갔다. 특히프랑스의사회사상에심취해이방면에나름대로정통했다. 1900년부터 1901년사이에는사회주의에접근했고, 사회민주당창립에도참여했다. 그는주로「만조보萬潮報」란신문을중심으로사회주의활동을했는데,

1901 년이신문에기고한글에서“나는사회주의자다”라고선언함으로써혁명의길을걷기시작했다.

사회주의자로서고토쿠슈스이의초기사상을한마디로 요약하면반전평화론이라고할수있다. 그는지구상의모든전쟁에반대했고각나라의군비확장을비난했으며일본의군국주의정책에도정면으로대항했다. 또한근대시기전쟁의원인을연구하는과정에서제국주의를발견하고, 이를분석하는데몰두했다. 1901 년「만조보」에〈20 세기의괴물, 제국주의〉라는글을발표해그연구성과를알렸으며,⁹ 다음해에출간한논문집『장광설』에서도반제국주의사상을전개했다. 그는이런책들에서역사발전의규율에따라자본주의는반드시사회주의로대체된다고주장하고, 자본주의의한형식인제국주의는모든죄악의근원이자타도대상이라고단언함으로써마르크시스트로서의모습을비교적선명하게보여주었다. 그의제국주의비판은서양열강뿐만아니라일본의군국주의경향을겨냥한것이기도했다.

고토쿠슈스이는군국주의를비판하면서일본인의애국주의도서슴없이비판했다. 그는애국심이란“국민의허구와미신의결과”이며, 애국주의란“야수의천성이자미신이요, 광란이자허구이며, 호전적인마음”이라고주장했다. 그는군국주의와애국주의를동전의앞뒷면과같은관계로보아함께부정했고, 세계주의에기초해민족과조국을초월한보편적인류애를강조했다.¹⁰ 이런주장은일본의진보적지식인들과노동자들에게반제투쟁의이론적근거를마련해준것이기에의미가크다. 고토쿠슈스이가사회주의자로서펼친이론적탐색은마침내『사회주의의신수』(1903) 라는저작을낳는다. 이책은앞서말한가타야마센의『나의사회주의』와함께메이지시대사회주의를대표하는양대저작으로꼽힌다. 고토쿠슈스이의침략적제국주의와배타적애국주의에대한비판은중국문제에서도나타난다. 그는서양열강의중국정책은물론일본이대륙진출을위해펼친침략정책도한치의양보없이비판했다. 뿐만아니라러일전쟁시기에는반전사상을직접실천에옮김으로써지행일치의모범을보였다.

「만조보」가러시아에대한전쟁을지지하는쪽으로태도를바꾸자고토쿠슈스이는 1903 년 11 월여기서이탈해사카이토시히코와더불어‘평민사平民社’를조직하고주간「평민신문」을창간했다. 이로써그는사회주의자로서새로운단계에들어서게된다. 평민사는 (1) 자유·평등·박애, (2) 평민주의, (3) 사회주의, (4) 평화주의, (5) 비폭력이라는방침을내걸고독서회, 연구회와같은전국적인조직망을통해러시아와의전쟁을반대하는운동을펼쳤다. 그들은러시아와일본이대립하는배후에는정치가와자본가의음모가숨어있다고폭로하고전세계평민이연대하는반전평화운동을제창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1904 년 1 월러일전쟁이일어나자일본열도는전쟁열기로흥분의도가니에빠져들었다. 진보적인일본인들조차막상전쟁이일어나자대부분열렬히전쟁을지지했다. 하지만고토쿠슈스이와사카이토시히코등

『자본론』을저술했다면, 크로포트킨은『윤리학』을저술했다”는말이암시하듯이아나키스트는경제문제에서도윤리적인가치기준을중시했다.

이에반해공산주의자들은아나키스트의주장이자급자족식경제체제의발상으로공상에불과하며전혀과학적이지않다고일축했다. 그들은사회주의가자본주의를타도한후에도결코자본주의식대생산제도에서후퇴할수없으며, 사회주의혁명후에도생산력의발전에한계가있으므로‘노동에따른분배’를해야지‘필요에따른분배’를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 당연히분배는공산당이결정할사항이었다.

아나·볼셰프는이런이론적인경쟁이면에누가더효율적으로사회변혁의대안을제시할수있는가, 라는실제적인문제를안고있었다. 논쟁의승패가바로드러난것은아니다. 논쟁이한창이던 1920 년대전반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였다. 그러나얼마후볼셰비키의우세로돌아섰다는것은그들의승리를증명하기에충분한것으로보인다. 일단현실정치의문제에그렇듯한전략과전술을구사한마르크시즘이그렇지못한아나키즘을밀어낸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좀더넓은시각에서바라보자면, 민족주의고양과국민국가건설이라는시대의흐름에적절히부응한공산당은훗날정치적주도권을차지할수있었지만, 민족주의와국가주의를일방적으로거부한아나키즘은시대의흐름에낙오해실패했다는해석도가능할것이다.

그러나현재의관점에서볼때, 아나키즘운동이사상의공상성때문에실패했다고잘라말하는것은다분히결론적인해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아나·볼셰프에서아나키스트들이제시했던주요한관점들이지금도유효하기때문이다. 이부분을간단히살펴보자.

첫째, 마르크시스트가과학적사회주의라는이름아래중앙집권적혁명정당권립을주장한데반해아나키스트는자유연합과분권적인조직원리를제시했다. 그들의조직원리가현실에적절한지에대해서는여전히이론이있을수있으나, 최소한그들은볼셰비즘에내재된권위주의적일당독재의출현을정확하게예측했다.

둘째, 사실상일부엘리트집단이주도하는프롤레타리아독재를승인했던마르크시스트에대해, 아나키스트는이런시도는결국변질되며모든변혁운동은반드시그운동주체가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인민을위한’사회주의가아니라‘인민의’사회주의를제창했던그들의선언은의미심장하다.⁸²

셋째, 마르크시스트는경제결정론과역사유물론을신봉했다. 그들의결정론과목적론적인사고방식은당시에는설득력이매우컸으나, 오늘날의관점에서본다면이런경직된사고방식은많은문제를불러왔다. 한시대의승리자라고해서반드시정의로운것은아니다. 과학임을자랑하는이론의독재를민느니차라리그목적을포기하는것이낫다는생각은 20 세기의역사가우리에게가르쳐준교훈이다.

넷째, 마르크시스트들은계급투쟁이민족문제, 여성문제같은사회의여러모순을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관건이라고믿은것과달리, 아나키스트는가족·종교·국가등모든권위가자유를억압하는존재이므로이들에맞선‘전방위’의투쟁을

강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러시아의 볼셰비키역시 교육·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ана키스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관한 한 조금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았다.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방식은 명분이야 어쨌든 본질이 같으므로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운영하는 지도부의 존재 역시 부정했다.

이에 볼셰비키는 국가 문제는 고립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 생산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임의로 창조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계급 투쟁을 완수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어야만 부르주아 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소비에트이며, 이를 이끄는 지도부는 신경 중추에 해당된다며 그 현실적인 필요성을 긍정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에서 만약 크로포트킨의 자유 조직으로 레닌의 노동 정권을 대신한다면, 곧바로 부르주아 세력을 회복해 제정의 복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당의 규율 문제: ана키스트들은 “개인주의는 ана키즘의 좋은 친구”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절대 자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의 집체주의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반대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부조를 적자 생존보다 높이 평가했다. 상호 부조주의에 기초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 것이다. ана키스트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조직의 규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를 가차 없이 비판했다. 여기에는 볼셰비키의 민주집중제와 같이 다수가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도 해당되었다. ана키스트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조직을 선호했다. 한편 혁명의 방법으로서는 테러, 총동맹 파업에서 교육을 통한 혁명론까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반해 볼셰비키들은 자유란 상대적인 것으로 사회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절대 자유는 불가능하며, 절대 자유를 주장하는 ана키스트의 선전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혁명 과정에는 권력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혁명의 방법으로서는 당의 영도를 받는 프롤레타리아 전체 계급의 통일된 각중전술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것을 주장하며,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강조했다.

셋째, 생산과 분배 문제: ана키스트는 경제 조직에서 생산자의 자주 관리 원칙에 따라 이들 생산자들의 조합이나 공장이 생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 통제식 경제 체제에 반대한다. 그들의 경제 원칙은 평등주의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혁명 후 잡시의 혼란은 있겠지만 노동 자체가 즐거워져 생산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은여전히 「평민신문」을 중심으로 반전 논리를 폈다. 그들은 “군비와 전쟁은 오늘날의 국가가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철의 장벽이며, 대다수의 인류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전 전쟁에서 “일본이 조선, 만주와 시베리아를 얻게 된다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치가나 자본가 계급 일뿐이다. 지위나 자본이 조금도 없는 대다수 노동인민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게 군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반전 공동 투쟁을 제의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¹¹ 이처럼 전쟁 중에도 「평민신문」이 반전의 필불을 누그러뜨리지 않아 당국은 신문을 폐간해 버린다. 이시기 고토쿠스스이와 사카이 토시히코가 일으킨 반전 운동은 일본 근대사에서 처음 전개된 조직적인 반전 운동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일 때, 고토쿠스스이와 사카이 토시히코는 『공산당 선언』 대부분을 번역해 「평민신문」에 발표하고 다음 해 책으로 펴낸다. 이 책은 사실상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일본어 판본으로 일본 마르크시즘의 출발을 알린 이정표이다. 여기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자산 계급, 무산 계급이란 용어로 처음 번역했다고도 한다. 그 후 『사회주의 - 공산에서 과학으로의 발전』, 『마르크스 전』, 『엔겔스 전』 등이 차례로 번역 출간되었다. 얼마 후 일본에 머물던 중국인 ана키스트들도 고토쿠스스이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ана키즘 잡지에 『공산당 선언』 일부를 번역 소개했다. 중국에서 완역본이 나온 것은 1920년 (천왕타오가 중국 공산당 당장을 준비하던 중 상하이에서 『공산당 선언』을 완역 출간했다)인데, 재일 ана키스트들의 작업은 그 전에 나온 번역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사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마르크시즘을 처음 소개한 사람들은 ана키스트가 많았다. 이는 초창기에 ана키스트들이 마르크시즘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훗날의 일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평민신문」 폐간 직후인 1905년 2월, 니시카와 코지로가 번역한 책이 문제가 되어 필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고토쿠스스이는 인쇄인이란 이유로 체포되어 반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감옥은 언론을 통한 투쟁에 한계를 느낀 그에게 조용한 독서와 사색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훗날 고토쿠스스이는 이때를 회고하며 “나는 마르크스파의 사회주의자로서 투옥되었으나 출옥할 때는 과격한 ана키스트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때 크로포트킨의 ана키즘 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한 듯하다. 크로포트킨의 사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ана키즘 사조 가운데 하나였다.

출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5년 10월 중순, 고토쿠스스이는 돌연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천호아제를 자유롭게 비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고 말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꾸준히 강화되어 사회주의자들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심했다. 특히 천황 중심의 통치 체제가 점점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에서 고토쿠스스이는 혁명적 노동 조합인 I.W.W 의 사회주의자들, 주로 ана키스트 노동 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ана키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새롭게 대두된 반

의회주의경향을흡수한듯하다. 1906년 4월 18일, 고토쿠슈스이는캘리포니아주에서대지진이일어나온시내가무정부적혼란상태에빠지는것을목격한다. 이돌발적인사건을계기로고토쿠슈스이는마르크시스트에서아나키스트로극적인사상전환을하게된다.¹² 구미사회운동가와접촉함으로써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을수용한그는예정보다빨리귀국한다.

일본에서아나키스트들이집단적으로출현한것은대략 1906년무렵인듯하다.¹³ 고토쿠슈스이가미국에체류하던 1906년, 일본의사회주의운동은기독교사회주의자들이만든잡지「신기원」과가타야마센, 구츠미겟손, 오스기사카에 등이참여한잡지「광光」이주도하고있었다. 여기서구츠미겟손은고토쿠슈스이와더불어일본아나키스트운동사에서제 1세대지도자로꼽히는인물이다. 고토쿠슈스이가사회문제에관심이많았다면그는개인문제에관심이많았다.¹⁴ 그리고오스기사카에는고토쿠슈스이를이어받아다음세대아나키스트운동을이끌며아나키즘의전성기를구가한인물이다. 이시기에사카이토시히코가「사회주의연구」라는잡지를만들어마르크시즘과아나키즘을선전한사실도주목할만하다. 이잡지에실린글들은재일중국인의잡지에도일부번역소개되었다. 무엇보다 1906년에일어난가장큰사건은 2월에‘일본사회당’이합법정당으로조직되어일본사회주의운동사에한획을그은일이다. 고토쿠슈스이는창당시기에미국에있었지만많은사람들은이미그를일본사회당지도자의한사람으로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1906년 6월 23일, 고토쿠슈스이는귀국환영회자리에서자신이마르크시즘을버리고아나키스트가되었다고공식선언함으로써일본사상계에큰충격을안겨준다. 직접행동선언으로알려진‘세계혁명운동의조류’라는연설을통해서였다. 그는이연설에서보통선거를통한권력창출이라는의회주의노선은사회혁명의방법으로무력하다고말하고, 노동자의직접행동인총동맹파업을통해서사회주의운동을전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런주장은바로아나르코생디칼리즘 Anarcho-Syndicalism(노동조합주의적아나키즘)의원칙에바탕을둔것이다.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란아나키스트들이혁명수단의하나로생디칼리즘을받아들인것이다. 이사상을통해아나키즘과노동운동이결합할수있었고, 그후아나키즘은조직적인대중운동을펼쳤다. 사실아나키스트들이의회제도를불신하는것은역사가깊다. 프랑스대혁명의먼지가채가라앉기도전에이미푸르동이개인의주권을대표자에게넘겨주는행위는주권을상실하는행위라며의회제도를거부한바있다. 그가“보통선거는반혁명적이다”라고주장한후이런전통은계속되었다. 어쨌든문제는, 고토쿠슈스이의폭탄선언으로말미암아갇태어난일본사회당에분열의기미가나타났다는사실이다.

1907년에들어서자마자평민사를재건한고토쿠슈스이는일간지「평민신문」을발행한다. 마침「신기원」과「광」이폐간되었기에이잡지에참여했던사회주의자들의도움을받아새로신문을펴낸것이다. 「평민신문」2월 5일자에발표한〈나의사상변화〉란글에서고토쿠슈스이는“솔직히말하면사회주의

한다. 이에반발한청년아나키스트어우성바이가곧바로천두슈에게편지를써서강연에의문을제기함으로써문제가불거지게되었다.

대부분의논쟁이그렇듯이, 처음에는비교적우호적인분위기에서도론을벌였으나, 시간이점차지나면서논쟁이가열되고더많은사람들이가세하면서사상투쟁의성격이분명해졌다. 전국의주요도시에서아나·불논쟁이일어났고, 논쟁은당시막싣고있던노동운동분야로확산되었다. 중국사회에서는노동운동조차아나키즘계열이마르크시즘계열보다먼저수용되었고세력도강했다. 따라서마르크시즘계열이우위를차지하기까지적지않은시간이걸렸다. 1920년대전반기에팽팽한대결을계속하다가 1925년 5월광저우에서열린제 2차전국노동대회에이르러서야겨우공산주의노동운동이아나키즘노동운동을앞지를수있었다고한다.

한편, 한인의경우는 1920년초에아나키즘과불세비즘을거의동시에수용했기때문에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들은민족해방운동의방법을둘러싸고처음부터대립했다. 국내에서는조선노동공제회가, 일본에서는흑도회가, 중국에서는의열단이각각분열된사실이이를보여준다. 국내에서는 1922년여름부터공산주의자들이조선노동공제회를개조하려는과정에서충돌이일어났다. 얼마후공산주의자들은조선노동연맹회를결성했고아나키스트들은흑도회라는단체를조직했다. 재일한인의경우도흑도회안에일찍부터공산주의자가섞여있었고, 곧이어분열을겪은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는흑우회와복성회로각각나뉘어각자다른길을걷는다. 재중한인들사이에서는처음에는아나키즘경향이제법강했는데, 1921년상하이에서이동회계열이고려공산당을창립한후공산주의자들이대거등장하기시작했다. 그리고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와합작하는것을포기하고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같은자신들만의조직을건설하기시작했다. 이런사상의분화과정에서의열단이갈라진것이다.

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을가리켜혁명이라는명분을내세워공산독재를획책하는또하나의사대주의자라고비판했다. 기본적으로자본주의를타도하고사유재산을철폐해야한다는점에서는같은사회주의자였지만, 러시아의불세비키에게무조건복종하는태도에는공감할수없었던것이다. 아나·불논쟁이격화되면서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을“씨도없이모조리박살내야한다”고믿게되었다. 이런민음은공산주의자와무력충돌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다. 만주에서김좌진등이공산주의자에게살해되면서이런감정의끓은더욱깊어졌을것이다.⁸⁰

동아시아 3국의아나·불논쟁은사회환경에따라나름대로특색이있지만, 주요한쟁점은비슷했다. 논쟁의핵심내용을정리하자면대략아래의세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⁸¹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와마르크스주의국가론문제: 아나키스트는국가란소수가다수를지배하기위해만든것으로인류사회에서최악의근원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 이점에서는부르주아국가든프롤레타리아국가든자유를억압하는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볼셰비키혁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침묵한다. 뿐만 아니라 레닌 정부가 러시아 혁명에 적극 참가했던 아나키스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혁명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일본 사회에 볼셰비키가 등장한 것은 아나키스트를 위협하려는 강력한 도전자가 출현했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등장은 곧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을 낳았는데, 이러한 분열은 특히 노동 운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전까지 아나키스트 계열 노동조합과 마르크시스트 계열 노동조합은 이론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단결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이 일어난다. 논쟁의 요점은, 전국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자율적인 조합의 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집권적인 통일 조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이 깊어지자 일본의 마르크시스트들은 1922년 7월 일본 공산당을 창립하고, 곧이어 좌파 계열의 노동조합을 모아 총동맹을 결성했다. 오스기 사카에에는 이런 행위를 비난하면서 과거의 동지였던 일본 공산당 창설자 사카이 토시히코와 야마가와 히토시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양대 사회주의자였던 가타야마 센과 고토쿠 슈스이의 결별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결국 아나키스트 계열의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전국 조직을 구축해 나가면서 아나·볼논쟁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도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질 무렵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시스트 사이에 아나·볼논쟁이 벌어졌다. 프롤레타리아계 급정당 또는 프롤레타리아계 급독재가 필요한가 등의 문제를 놓고 양진영이 맞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사회는 20세기 초반에 아나키즘을 마르크시즘보다 먼저 수용했으며, 그 결과 아나키즘이 사회주의 사조 가운데 가장 앞서나갔다. 1911년 신해혁명 후에는 스푸의 노력으로 한때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와 달리 마르크시즘은 아나키즘보다 10여년 늦게, 즉 레닌의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다음에야 중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군벌의 위협에 대항하고 사회혁명을 추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두 파벌은 잠시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의 아나·볼논쟁은 일본과는 달리 노동 운동 분야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점이 이채롭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분야에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당을 건설하려는 일부 마르크시스트와 아나키스트 사이에 먼저 논쟁이 일어났다. 1920년 9월 1일 천두슈는 「신청년」에 실은 〈정치를 말하다〉라는 글에서 아나키즘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다. 즉 국가·정부·법률을 단번에 폐지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권력을 집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해 말 그는 광저우의 법정학교에서 열린 ‘사회주의 비평’이라는 강연에서 아나키즘을 본격적으로 비판

운동의 수단 방법에 관한 논의의견은 재작년 투옥 당시와 달라졌고, 다시작년의 여행에서 크게 변했으니, 지금 수년 전을 회고하면 스스로 거의 딴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통 선거와 의회 정책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일치 단결한 노동자의 직접 투쟁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¹⁵ 이 글은 일본 사회당 제 2차 대회 직전에 발표했는데, 이미 당은 의회 정책을 지지하는 쪽과 직접 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하고 있었다.

1907년 2월에 열린 일본 사회당 제 2차 대회는 이른바 의회 정책 파와 직접 행동 파의 논쟁의 장이었다. 가타야마 센, 다조에 데츠지를 중심으로 모인 의회 정책 파는 제 2 인터내셔널 노선을 따라 의회주의 방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한편 고토쿠 슈스이, 사카이 토시히코, 야마가와 히토시, 오스기 사카에 등이 이끄는 직접 행동 파는 의회 투쟁을 완전히 부정하고 총파업을 통한 직접 행동을 주장했다. 투표에서 직접 행동 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일본 정부는 즉시 「평민신문」의 발행을 금지하고, 일본 사회당을 해체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 속에서도 직접 행동 파는 일본 사회에 아나키즘적 사회혁명을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사회당이 분열한 후 의회 정책 파는 1907년 8월 사회주의 동지회를 결성해 일요일마다 연구회를 개최하고, 주간 「사회신문」, 「도쿄 사회신문」 등을 발간했다. 한편 직접 행동 파는 같은 해 9월 금요강습회를 결성해 금요일마다 강연회를 개최했고, 일간 「평민신문」, 「오사카 평민신문」 등을 발간해 독자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직접 행동 파에 대한 탄압 강도를 한층 높여 선전 활동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고토쿠 슈스이의 주장에 동조해 금요강연회를 중심으로 모여 들었다. 결국 직접 행동 파가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즈음, 일본에 거주하던 중국인 및 한국인 혁명가나 유학생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들은 단체와 잡지들을 만들어 사회주의를 적극 수용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아나키즘을 받아들여 고토쿠 슈스이의 운동 노선과 결을 같이했다. 이것이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연대의 시작이다.

2. 동아시아 혁명가들의 사상 교류

고토쿠 슈스이는 사회주의에 입문할 때부터 중국 문제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으며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혁명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중국이 병든 환자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라고 굳게 믿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제 2의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관심은 아나키스트가 되어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 문제를 보는 견

해는달랐다. 1900 년이전에고토쿠슈스이는일본의한국침략을지지했다. 그러다사회주의자였던「만조보」시절에생각을바꾸지만정부정책에대한비판에는여전히미온적이었다. 하지만평민사시절이후즉어나키스트가된다음에는일본의한국침략을본격적으로비판한다. 아마도정보가부족하여일본을한국의침략자로인식하는데시간이걸렸던것같다.¹⁶

아나키스트가된고토쿠슈스이는중국과한국을침략하는일본의군국주의정책에반기를들고일본에거주하던중국인과한국인들에게우호적인태도를보였다. 그는특히중국의혁명가들과긴밀한협조관계를구축하려했다. 이미재일중국유학생은만여명을넘어섰고, 그들이주로거주하던도쿄지역은일본사회주의자들이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곳이었다. 많은중국유학생과혁명가들은일본사회주의자들의정치집회에참가했으며, 일부는고토쿠슈스이와직접교류했다. 중국동맹회원이었던장타이엔(章太炎), 장지(張繼), 류스페이, 허젠(何震) 등이대표적인인물들이다. 이들은 1907 년초부터고토쿠슈스이와만나면서그의영향아래자연스레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같은해고토쿠슈스이는「평민신문」에쓰글에서일본인혁명가와중국인혁명가의결속을다지고, 나아가동아시아여러나라의사회주의자들이연대할것을촉구했다. 그의바람은곧이루어졌다. 중국동맹회의주요지도자인장타이엔이이제안에호응해국제적인단체를조직하려한것이다.

1907 년 4 월 (?)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등의혁명가들은도쿄에서‘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라는단체를만들었다. 이단체는동아시아에서처음으로반제국주의를목표로모인국제조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남아있는자료가많지않아구체적인규모와활동을파악하기는어렵다. 지금까지알려진바로는일본에서는금요강습회파의고토쿠슈스이, 야마가와히토시, 오스기사카에등이참가했고, 중국에서는중국동맹회회원인장타이엔, 장지, 류스페이등이참가했다. 그리고인도의망명객과다른나라의일부혁명가들이참여했으며, 장타이엔을회장으로해서인도인회관등에서모임을가졌다고한다.¹⁷

다행히장타이엔이만든것으로보이는〈아주화친회약장〉이남아있어이단체가추구한바를조금은알수있다. 이문헌을보면아주화친회는우선제국주의반대투쟁을제창하면서민족의독립과해방을첫번째과제로삼고있다. 그리고이런과제를이루기위해민족을초월하는아시아인의국제적연대를강조하고있다. 약장은“아시아인으로침략주의를주장하는자를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를불문하고모두입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¹⁸ 제국주의에반대하는세력이라면사상에관계없이수용하려는의지가인상적이다. 특히사회주의자단체가민족주의자의참가를허락하고있다는점이두드러지는데, 아마도각나라의특수한사정을고려했기때문으로보인다. 물론민족주의자의범주에침략적민족주의자는들어가지않는다. 아주화친회는순수한아나키스트조직이아니라진보적인사들의연합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책임자를따로두지않고,

압으로오래지않아해체되었다. 이처럼남부지방의아나키즘활동은실패했지만, 국내아나키스트운동은다시북부지방으로확산되었다. 그리고 1926~1927 년에북부지방에서조직된아나키즘단체가 20 년대후반의운동을주도하게되었다. 여러단체가있었으나, 평양에서조직된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와그들이주도한‘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이대표적인것이다. 관서흑우회는노동운동과농민운동에개입해볼셰비키와이론투쟁을벌이는한편독자적인조직을모색했다. 이에따라노동조합설립, 태업과파업주도, 노동야학개설, 공동작업소운영등을시도했고, 한편으로는전국적인조직망을건설하기위해노력했다. 관서흑우회를주목하는것은, 그들이점차고조되는공산주의운동에대항하기위해전국적인아나키스트단체를조직하려했기때문이다. 이렇게하여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이태어나게된다. 1929 년 11 월에각조직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결성한이단체는국내최초의전국적인단일조직으로, 기본적으로공산주의에대항하기위한조직이었다.

당시국내아나키스트들은 1927 년의신간회결성과맞물려아나키즘·볼셰비즘(아나·볼논쟁으로약칭) 논쟁에깊이개입했다. 하지만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은그리활발한활동을하지못하고일제의감시를피해곧지하로잠복했다. 그후에도전국적인아나키스트단체를결성하려는시도가몇차례있었다.

제 4 장아나·볼논쟁과아나키스트운동의쇠퇴

1. 동아시아의아나키즘·볼셰비즘논쟁

러시아에서볼셰비키혁명이성공하고레닌정부가들어서자동아시아사회주의자들은이를새로운희망으로받아들였다. 자본주의제도를전복한세계최초의사회혁명이었기에서사회주의자라면누구나이혁명에호기심을가졌고대체로우호적인눈길을보냈다. 일본의아나키스트오스기사카에도아나키즘과볼셰비즘은근본적으로다르다는사실을알고있었지만, 러시아혁명의진상을충분히파악하지못했기때문에이혁명이일본의사회에가져올긍정적인효과를은근히기대했다. 그래서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직접상하이에가서수소문하기도했다. 하지만프롤레타리아독재가오히려노동자와농민의권리를빼앗고이들을강압적으로통제

이호룡은 「탈환」과 같은 한인이나 키스트 잡지를 분석하면서 일제시대 민족 해방운동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사상구도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나키즘이라는 제 3의 사상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이런 아나키즘의 민족해방론은 사상사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의 계속된 실패와 내부의 분열이 한인이나 키스트로 하여금 아나키즘 원리에서 이탈해 중앙집권조직과 민족독재론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해방 후에는 제 3의 사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⁷⁹

아울러 1920년대 후반 만주 지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아나키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만주에서 한인이나 키스트들이 농민을 기반으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한 것이다. 그곳에는 교민 수십만 명과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일제가 간접통치를 실시하여 국내에 비해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곳 운동의 주역은 청년 아나키스트 김종진이다. 그는 상하이 임정의 분열을 보고 만주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할 것을 주장한 인물로, 유자명을 통해 의열단과, 황훈을 통해 다물단 多勿團과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백정기의 소개로 아나키스트 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등과도 교류했다. 1926년에 텐진에서 이회영을 만난 김종진은 이른바 ‘무정부주의 문답’을 통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이 문답의 내용을 기초로 만주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시작했다.

김종진은 1927년 10월 만주에도착해 김좌진을 만났으며, 김좌진의 신민부 新民部를 이용해 아나키즘적 코뮌사회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는 김좌진의 지지를 받으며 신민부 개편에 가담해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혁명 근거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토의했는데,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기초한 이상촌 건설 그리고 항일운동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연합회는 중앙집권조직을 거부하고 자유연합에 기초한 지방자치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사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즈음 만주의 한인이나 키스트들은 ‘재만조선인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여 잡시장 및 빚빚에 젖어 들었으나, 곧한인공산주의자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김좌진이 박상실에 거적당해 사망하자 이 운동은 위기를 맞는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한인이나 키스트들이 만주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이주하려 했다. 그런데 만주에서 한인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분쟁이 계속되어 여럿이 피살되고 김종진조차 행방 불명되자 계획은 불투명해진다. 아마도 김종진은 조직 내부의 분열 과정에서 피살된 듯하다. 더구나 일본이 만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자 이상촌 건설 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 지역에서 주하던 한인이나 키스트들은 1931년 8월 만주를 포기하고 중국 관내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2년여에 걸친 만주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운동의 실패에 심한 좌절감을 느낀 이회영이 다시 만주로 향하던 중 파렌에서 체포돼 고문으로 희생된 것도 얼마 후의 일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1924년과 1925년에 흑기연맹과 진우연맹이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조직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

압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규정으로 보아 아나키즘의 자유연합 정신이 짙게 스며 있었음은 분명하다. 활동기간은 18개월 정도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아주화친회에 한 국인은 없었을까? 고토쿠슈스이나 오스기 사카에는 1900년대에 이미 일본에 한 국인 사회주의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민을 만 한 한 일본인의 회고록을 보면, 한인 혁명가들은 일본인이 참가한다면 자신들은 아주화친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말대로라면 강렬한 배일 감정 때문에 일본인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시 한인의 활동을 말해주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고에 의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 시기에 한 국인 아나키스트가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친목회 중심의 개인적 인차원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아직 조직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주화친회와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 강습회’가 창설된 것도 주목할 만 한 또 다른 사건이다. 이 단체는 1907년 6월 고토쿠슈스이의 금요강습회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 혁명가 장지와 류스페이 등이 만든 아나키즘 단체이다. 그 구성원은 아주화친회와 거의 일치하며, 일본 폭력자 역시 고토쿠슈스이를 비롯한 일본인이나 키스트들이었다. 이 단체는 파리에서 조직한 ‘세계사 世界社’와 더불어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아나키즘) 단체였다. 따라서 그들이 발간한 「천의」는 같은 시기 파리에서 펴낸 「신세기」와 더불어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아나키즘) 잡지다. 류스페이가 이 잡지에 쓴 〈아주현세론〉을 보면 고토쿠슈스이가 처럼 반제국주의와 아시아 연대론을 제창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의 독립을 맨 앞에 놓지만 중국 혁명의 문제를 사회혁명의 범위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편협한 종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

당시 장지나 류스페이 등 중국의 청년 급진주의자들은 중국 동맹회의 정치 노선에 불만이 많았다. 그들은 동맹회가 공화혁명을 주장하지만 실은 종족주의 혁명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혁명 이론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키즘이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에 “중국인들은 단지 민족주의만을 알았지만 생의 고통을 살피지 않아 근본적인 혁명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사회주의를 연구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듯이, 그들은 기존의 민족주의 혁명 노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다. 고토쿠슈스이는 사회주의 강습회의 첫 번째 창립 모임에서 초청 강연을 하여 중국인들과의 유대를 과시했다. 그 후에도 일본인이나 키스트들은 사회주의 강습회에 꾸준히 참석해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사상을 교류했다.¹⁹

중국의 청년 혁명가들이 고토쿠슈스이의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 사상을 받아들여 이자쑤원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에 분열이 일어난다. 고토쿠슈스이의 직접 행동론이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를 촉진했듯이 중국 혁명가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함으로써 동맹회가 분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인이나 키스트들은 더욱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 동맹회를 개조하려 했다. 그들은 쑤원이 일본 정부에 의해 국외로 추방되자 그들을 이용해 동맹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일부 동맹회원의 반대로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이 사건을 중국 혁명이 이

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했다. 고토쿠슈스이가 제창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연대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사회주의 강습회와 「천의」는 중국 아나키즘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한편 고토쿠슈스이는 1907년에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원칙에 따라 직접 행동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정당문제나 선거문제에는 뚜렷한 관점을 세우지 못했다. 나아가 아나키즘 사상의 주요한 특징인 국가 권력 부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의 주요 분기점인 혁명 후의 과도기 문제,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부정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일본내 중국인 아나키스트들도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아마도 마르크시스트에서 아나키스트로 전화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그는 크로포트킨의 『빵의 쟁취』를 번역하면서 이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극복한다. 이 책은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내건 아나키즘적 공산주의를 설명한 책으로, 1909년 1월에 일본어판이 발행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사상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잠시 살펴보자.

크로포트킨 (1842~1921)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아나키즘 이론가이자 활동가이며, 국제적인 지리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1880년대부터 정력적으로 아나키즘 선전 활동을 시작해 광범위한 저작을 남겼다. 특히 1883~1886년 프랑스 감옥에서 저술한 『빵의 쟁취』(1892)와 『전원·공장·작업장』(1899)이 대표작이다. 그 후 영국에서 『현대 과학과 아나키즘』(1901)과 『상호부조론』(1902)²⁰ 등을 출판했다. 그의 사상은 ‘상호부조론’이란 제목에서도 보듯 상호부조주의라고도 불린다.

크로포트킨 류의 사상을 두루 일컬어 아나르코코뮤니즘 Anarcho-Communism(공산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이용어는 크로포트킨의 동료이자 추종자인 엘리제르 클뤼(Élisée Reclus)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가족·종교·국가와 같은 권위가 소멸하고, 개인의 자유와 욕구에 따라 생활하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들은 국가 대신 코뮌을 단위로 하는 자유 연합 사회를 희망했다. 이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사유 재산을 철폐하여 모든 재화를 코뮌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도시와 농촌이, 농업과 공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분권 사회였다. 그들은 개인 이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이 충만해 줄 거운 노동이 가능한 곳, 또한 불평등한 교육이 낳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차별이 사라진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본디 자연 과학자라서 그런지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 아나키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아나키즘 이론을 집대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쿠닌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바쿠닌의 파괴 이론을 건설의 논리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크로포트킨의 사상은 유럽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고토쿠슈스이, 오스기 사카에, 리스젠, 스푸, 신채호

의열단의 지도자 김원봉은 1923년 1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오스기 사카에를 만나 도쿄 지부 설치에 합의하는 등 아나키즘 활동에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공산주의에 경도되면서 아나키즘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그리고 1929년에 상하이 지부의 의열단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활동은 끝났다. 장지락은 자신이 아나키스트 그룹에 가입한 뒤에야 의열단의 단체 생활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사실 상 아나키즘이 의열단을 지배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들은 굶직한 것만 해도 십여 차례나 암살 파괴 사건을 감행했다.

앞의 의열단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한 아나키스트 단체들도 생겨났다. 1924년 4월 베이징에서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신채호를 제외한 초창기 재중한 아나키스트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정의공보正義公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고 하나,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927년까지 그들은 주로 기관지를 통한 선전 활동에 주력했으며, 한인 아나키스트 가운데 일부는 상하이로 진출해 테러 활동이나 노동 운동에도 참여했다.

1928년 3월에는 재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 자연맹이 만들어져 그해 여름 기관지 「탈환」을 발간했다. 우리는 이 잡지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 아나키스트의 생각을 그나마 엿볼 수 있다.⁷⁷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은 ‘되빼앗자’는 의미의 탈환론은 그들의 다음과 같은 구호에도 나타난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자! 왜놈에게 빼앗긴 것은 왜놈에게서! 조선놈에게 빼앗긴 것은 조선놈에게서! 빼앗아 온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그 주인이다! 탈환 후의 사회는 자유의 무정부 공산사회다!” 여기서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민족 해방 운동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이론적 비판도 병행했다.

「탈환」에서 아나키스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대신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세력이라며 민족주의자를 공격했다. 그들은 민족주의에 내재된 배타 심리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국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또 다른 반동 권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와의 연합은 부르주아에게 이용당할 뿐, 민중 해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민족주의의 비판은 그들과 연합하는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또 한이 잡지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를 비판하는 글도 실렸다. 그들의 공산주의는 자본을 정부에 집중시키는 어용적, 강권적 공산주의에 불과하며, 진정한 공산주의라면 정부가 아닌 생산 단체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런 주장은 물론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덧붙이자면, 오창환은 탈환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중국 내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탈환론에서 일제의 조선 수탈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조선을 원위치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나키즘의 국가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즉, 조선은 일제가 선전하듯이 소위 문화 정치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은 노예의 상태에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자유·평등·박애·상호부조의 생존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것은 이전의 3·1 운동과 같은 타협적 투쟁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 방법을 제시한 이론이다.”⁷⁸

어떤사람들은일본인의아나키즘이국가주의에반대해천황제부정으로나아간 반면, 박열의아나키즘은민족적분노에서출발해천황암살로나아갔다고말한다. 사실박열의법정투쟁과정은보다도일본인에대한중요심과조선인으로서의자의식이매우강렬했음을알수있다. 하지만그의민족주의적경향만을강조하고, 허무주의와아나키즘의영향을부정하려는이런해석은설득력이부족하다. 그가주도한흑도회의선언에도이미슈티르너의개인주의적아나키즘경향이나타나는데, 이것은박열뿐아니라일본내한인아나키즘에자주나타나는특징이다.

한편이즈음국내에서도윤우열이라는청년이〈허무당선언서〉(1925년)를 만들어전국에배포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글에서도신채호의〈조선혁명선언〉이나박열의법정진술과비슷한급진적인논리를볼수있다.

대역사건으로침체했던흑우회는 1926년 5월기관지「흑우」를발행하면서세력을만회하려했다. 흑우회구성원일부는일본흑생청년연맹에가입함께활동했으며, 여러출판물을통해국내는물론만주와중국까지통신망을구축했다. 흑우회는불령사로, 흑풍회로, 다시흑우연맹으로여러차례이름을바꾸었다. 이즈음재일아나키스트운동은국내의신간회창립을전후해공산주의세력과대결하는양상을띠었는데, 그들의논쟁은결국폭력사태를불러왔다. 한편으로이시기의한인노동자들도아나키즘적노동운동을시작했고, 그들의연대활동은국내에도영향을미쳤다. 여기에서도일본노동운동과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의투쟁이일어난다.

다음으로중국에있던한인아나키스트들은활발한테러활동을벌였다. 그들은독자적인활동도했지만, 쑨원의국민당과같은혁명파의지원을받아암살대를조직하기도했다. 당시대표적인테러단체로의열단이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만주길림에서김원봉이조직한급진단체이다. “천하의정의의사를맹렬히실행하기로함”을공약 1조로하는이단체는정의의‘의義’자와맹렬의‘열烈’자를따서이름을만들었다고한다. 단장김원봉은급진적인민족주의자로독립운동의투쟁방법으로테러를받아들였다. 그는“조선총독을죽이기를대대로 5~6명에이르면후계자가되려는자가없을것이고, 도쿄에폭탄을터뜨려매년 2회이상놀라게하면그들스스로한국통치를포기하게될것”이라고생각했다. 의열단은 1) 조선총독이하고관 2) 군부(일본군) 수뇌 3) 타이완총독 4) 매국노 5) 친일파 6) 일제밀정 7) 반민족적인사들을암살대상으로정하고, 파괴할시설물로 1) 조선총독부 2) 동양척식주식회사 3) 매일신보사 4) 각경찰서 5) 기타일제의주요기관을설정했다.

의열단은활동무대를베이징으로옮겨와상하이까지세력을확장하면서아나키즘의영향을받기시작했다. 그들은혁명을달성하기위한유일한무기는폭력이며, 파괴는곧건설이라고믿었다. 20년대초에는이미아나키즘을받아들였는데, 여기서유자명이란인물의역할이주목된다. 바로그가신채호에게부탁해〈의열단선언문〉(앞서언급한〈조선혁명선언〉을가리킨다)을만들었는데, 이선언문은아나키즘과의열단의결합을상징하는글이다.

등이책에등장하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대부분이크로포트킨주의자라고할수있다.

왜크로포트킨의사상이동아시아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쳤는지이해하려면좀더친절한설명이필요하다. 우선그의아나르코코뮤니즘이당시세계에서가장널리유행한아나키즘이론이자운동이었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따라서동아시아인들도그의이론을자주접했을것이다. 다음으로사상의친근성을들수있다. 러시아의풍토에서썩튼크로포트킨의사상은동아시아의정치·문화·환경과비슷해받아들이기가쉬웠다는얘기다. 예를들어, 윤리학이중심에있는크로포트킨의사회주의이론은유학중심의윤리정치를추구한동아시아의전통과매우가깝다. 더욱이크로포트킨의사상은과학적연구성과에바탕을둔보편성을강조함으로써군국주의로나아가던일본뿐만아니라전제군주제가남아있던중국이나, 심지어일제의침략에서달리던한국에서도받아들일만했다. 특히피압박자의처지에서볼때국제연대라는사상은새롭고매력적인흐름이었음을이름없다.

그렇다면아나르코코뮤니즘은고토쿠슈스이가미국에서영향을받은아나르코생디칼리슴과는어떻게다른가? 아나르코생디칼리슴은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이결합한것으로, 생디칼리슴에자유연합사상이나강권을부정하는요소가있다는사실에주목한아나키스트들이이사상을아나키즘에접목한것이다. 아나르코생디칼리슴들은노동조합을무기로체제를타도하고, 혁명이성공한후에는정부를생산과분배를담당하는기관으로바꿈으로써무계급·무국가사회를만들려고했다. 이사상은프랑스에서등장해남유럽지역으로확산되었으며, 곧국제적인운동으로성장했다. 아나키즘연구자들은생디칼리슴을통해아나키즘이노동운동으로부활했다고평가하기도한다.

아나르코코뮤니즘과아나르코생디칼리슴은사회혁명을달성하기위한방법에서어느정도구분된다.²¹ 보통아나키스트들이사용한혁명수단에는몇가지가있다. 첫째, 테러이다. 그들은테러를통해아나키즘을선전하고동시에민중을각성시켜기존체제에저항하고자했다. 주로혁명의초기단계에서사용하는데, 반란과폭동또는총파업이불가능한상황에서택하는수단이다. 테러행위는그자체가목적이나아나키스트의전유물은아니라는점이다. 민족주의자든공산주의자든자신들의세력이미약할때는테러를즐거사용했다. 아나키스트를테러리스트와동일하게여기는것은반대파들이이미지를조작한결과라는혐의가질다.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테러가최선의방법이아니라는것을잘알고있었으나, 자신의도덕성과희생을담보로테러를선택했다. 청말중국의혁명가들이나일제시대한인혁명가들이테러를주로사용했으며,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도선호했다. 이방법은대중운동이활발해지면자연스럽게수그러들었다.

둘째, 선전과교육이다. 아나키스트들은동서양을불문하고각종사회문화운동을통해아나키즘을선전하고전파하는데주력했다. 그들은대중이아나키즘을많이알수록이상사회에더가까이가갈수있다고믿고, 신문이나잡지및서적발

간등에힘을쏟았다. 특히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무엇보다교육을통한아나키즘 사회건설을강조했다. 따라서유학운동, 학교건설, 야학운영, 여성교육등이활 발하게일어났다. 그들은이런방법으로아나키즘사회를실현하려면오랜시간이 걸린다는것을알았지만, 절대다수민중의각성이없는한완전한아나키즘사회를 실현할수없다고믿었다. 어쩌면교육에대한강조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에 서가장두드러진특징일지도모른다. 여기에는넓은의미에서아나키스트이상촌 건설운동도포함될수있을것이다. 일본의신촌운동, 중국푸젠지역의농민자위운 동, 만주한족총연합회의혁명근거지건설운동등이그예이다.

셋째, 총파업이있다. 일부아나키스트들은아나키즘이노동운동과결합할경 우개량주의로흐를가능성을염려했다. 하지만많은아나키스트들은노동운동의 혁명성에주목해노동자가주체가된노동조합을사회혁명의수단으로보고, 총파 업과같은경제적직접행동을통해아나키즘사회를실현하려고했다. 이런맥락에 서 20 세기들어서면서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이노동현장에들어가노동자를조 직화하고, 불매운동·태업·파업을시도했다. 그들은궁극적으로는총파업을통해 자본주의사회를타도하고사회주의혁명을이루려한것이다. 일본에서는한때아 나르코생디칼리스트와순수아나키스트들이대립하기도했으나, 중국에서는아 나르코생디칼리슴이나나르코코뮤니즘에서분화·발전하여서로친밀한관계를 유지했다.

다소거칠게도식화하면, 앞두가지방법이전통적으로아나키스트들이주로 사용한방법이라면, 세번째방법은아나키즘이생디칼리슴과결합하면서새롭게 받아들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20 세기초에는아나르코코뮤니즘과아나르코생 디칼리슴이전세계를풍미하고있었는데, 고토쿠슈스의아나키즘도크로포트 킨의사상과노동조합주의가결합한것이라할수있다. 고토쿠슈스의사상은일 본아나키스트들의노력으로동아시아혁명가들에게널리 보급되었다. 중국인아 나키스트장지가독일인롤러의『총동맹파업』을번역해출판한것도이같은시대 분위기를반영한다.

앞서도말했듯이아주화친회와사회주의강습회의결성으로출발한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연대활동은그후에도꾸준히계속되었다. 중국혁명을지원하기 위해국경을넘은일본아나키스트의활동, 일본과중국아나키스트의지원을받아 민족해방운동에참여한한인혁명가들, 아나키즘이상사회를실현하기위해조직 된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조직들, 상하이노동대학이나푸젠성농촌자위운 동에참여한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의연합활동등이그것이다. 국경을초월한이 들의초국가주의연대의식은동아시아근대사에서매우이채로운페이지를장식하 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연대활동에대한연구가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우리는지극히단편적인사실만을알고있을뿐이다.

3. ‘대역사건’과 고토쿠슈스의 죽음

박열은운동과정에서점차급진적인투쟁방법을수용하면서일본황태자의결 혼식에참석하는요인을암살할계획을세우기도했다. 박열일파는더 나아가일본 제국주의를상징하는천황을제거하는것이한국과일본을위한최상의방책이라고 생각하고직접행동을결심했다. 그런데 1923 년 9 월 1 일에갑자기간토대지진 이발생한다. 이지진으로 23 만 6 천명이라는사상자가발생했다. 이때정부는체 제위기를벗어나기위해수천명의한인과일본인사회주의자들을무참히학살했다. 그가운데에는일본의대표적아나키스트인오스기사카에가포함되어있었고, 당 시박열도예비검속으로잡혀갔다. 그는조사과정에서상하이를통해폭탄을구입 한후일본에서테러를모의했다는혐의를뒤집어쓰고심문을받았다. 이사건은대 역사건으로확대되어 11 명의한인과 6 명의일본인이체포되고가혹한처벌을받 았다.⁷³

박열은법정에서가장효과적으로국가의규율을동요시키고전국민의가슴을 두드려서잡자는영혼을끌어내기위해혼자의힘으로대역사건을준비했다고진술 했다. 얼마후그는사형을언도받고복역하던중무기징역으로감형되어장기수생 활에들어간다. 그리고박열의옥중투쟁, 박열의일본인연인가네코후미코(金子 文子)의사랑, 가네코후미코의옥중임신설과의문의죽음등술한화제를뿌리며, 이사건은한국인과일본인의기억속에오래도록지워지지않았다.⁷⁴

당시박열의사상은아나키즘과허무주의가혼합된것으로, 한마디로정리하 기가쉽지않다. 그는어떤글에서노동을계속하는한노동자를착취하는자본주의 사회는유지도리것이며, 일하지않고먹는자도계속존재할것이라면서일하지않 고놀고먹는것이현사회를타도하는첩경이라고주장했다. 이처럼묘한논리는허 무주의적아나키스트에게종종나타나는현상이다. 그는대다수의아나르코코뮤 니스트와는달리인간의품성을불신했으며, 개인에대한불신은민중에대한불신 으로, 다시테러와파괴를찬양하는논리로이어졌다. 그의동료인김중한도“대우 주의존재를부인하는것이대자연에순응하는것이라면부르주아계급을죽이는것 도사람에대한자비이며, 자기의생부를부정함으로써타인의생부를부정하는데서대 자연에순응하고다수의사람을구하는결과가된다면타인을죽여도악이아니고도 리어선”이라고주장했다.⁷⁵ 이런주장들은허무주의와아나키즘이뒤섞인것으로, 중국인주치엔즈의초기사상을연상시킨다.

또한일제의식민지 지배논리를정면으로반박하던박열은“천황이란무엇인 가? 국가란인간의신체, 생명, 재산, 자유를끊임없이침해하고, 유린하고, 겁탈 하고, 위협하는조직적대강도단이다. 대규모약탈주식회사이다. 법률은국가라 는대강도단과약탈사회의권력을증오하고반항하는자에대한위협이다. 의회는 국가라는대강도단의대표자회이다. 국가란이약탈회사주주들의대표자회이다. 천황과국가란이들강도단과약탈사회의우상이며신단이다”라고선언했다.⁷⁶ 함 께체포된일본인연인가네코후미코도“천황은일본에서태어난인간에게최대의 모욕이며, 천황의존엄성을입증하는것은국민이노예임을의미하는것”이라규정 했다.

이루는 것으로 끝난다. 『용과 용의 대결전』은 작가의 아나키즘적 민중해방론을 문학작품 속에 잘 투영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신채호의 종교관이 드러나 있어 흥미롭다. 그는 이소설에서 종교란 민중의 반역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이며,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가 종교라는 마취제를 사용해 민중을 속였다고 말한다. 과거의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찬양하는 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반종교주의가 돋보인다. 그는 특히 예수를 민중의 기만자, 노예의 도덕을 선전하는 자로 자주 묘사하는데, 이처럼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마도 고토쿠슈스이의 『기독교의 살인』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⁷² 신채호의 반종교론은 전통 비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7년(?)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 가입한 신채호는 선전기관과 폭탄제조소를 설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베이징 우편 관리국에 있던 타이완인 린빙원(林炳文)과 짜고 지폐 200매를 위조해 현금으로 찾으려다 1928년 5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신채호가 아나키스트로서 펼친 짧은 활동은 어이없는 종말을 맞게 된다. 그는 파렌 재판소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으나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재판정에서 자신은 “의심 없는 무정부주의자”임을 자처하며 법정 투쟁을 벌인 신채호는 감옥에서도 아나키즘(에스페란토어)과 역사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나 옥중 생활로 추위에 지쳐 병약해졌으며, 결국 뇌일혈로 쓰러졌다. 출옥을 불과 1년 반 남겨둔 1936년 2월, 그는 57세의 나이로 차가운 형무소 바닥에 누워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뛰어난 아나키스트 한 사람이 또 다시 사라졌다.

3.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일본, 중국, 만주, 조선에 거주한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1920년대를 전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박열(1902~?)이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일본과 국내 운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 한 ‘대역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1921년 말 조직한 최초의 재일 아나키스트 조직 흑도회는 일본의 어느 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 집단 학살 사건 등에 관여하면서 사회운동 단체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즈음 박열은 1921년 10월(?) 잠시 귀국해 서울에서 흑로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1922년 말에 흑로회는 박열, 원종린 등이 이끄는 아나키스트 계열과 김약수 등의 불세비키 계열로 분열한다. 이에 박열은 흑우회 黑友會와 불령사 不逞社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불령선인 不逞鮮人」이란 잡지를 펴냈다. 이 이름이 문제되자 「현사회 現社會」로 고쳐 다시 발간했다. 김약수 등도 따로 북성회 北星會를 조직했는데, 여전히 흑우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자 일본 정부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해모를 꾸민다. 이른바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대역사건이 그것인데, 그 배경에는 ‘공개장사건’(또는 천장절사건)과 ‘적기사건’이 있었다.

공개장사건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일본 아나키스트들이 주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06년부터 이와사쿠타로⁷³ 등이 미국의 아나키스트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이나 엠마 골드만(Emma Goldman) 그리고 고토쿠슈스이의 영향을 받아 사회혁명당을 결성하고, 기관지 「혁명」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1907년 11월 3일 일황 천장절에 〈테러리즘〉이란 제목의 인쇄물을 일본 각 지에 게시하거나 나눠주었다. 이것은 ‘일본 황제 무초히토(메이지 천황을 가리킨다)에게 보내는 글’로 시작하는 협박장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황이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조롱하면서, 천황은 원시인에서 진화한 인류의 한 사람에(인류에서 진화한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천황 주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다. 이 협박장의 내용은 러시아 허무당원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공개장사건은 일본 정부가 한창 진행하고 있던 천황 신성화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으므로, 관계당국은 주모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회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탄압의 모습은 적기사건을 계기로 드러난다.

1908년 6월 22일 일간 「평민신문」 필화사건으로 투옥되었던 한 동지가 출옥하자 이시카와 산시로⁷⁴의 주최로 환영회가 열렸다. 행사가 끝날 즈음, 돌연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붉은 천에 무정부·무정부공산·혁명이란 한글자를 새긴 깃발을 들고 혁명을 불렀다. 그리고 이 깃발을 빼앗으려는 경찰과 청년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 중 돌로 오스기 사카에, 사카이 토시히코, 야마가와 히토시 등 많은 사회주의자가 검거되어 가혹한 징역형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적기사건의 요지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고토쿠슈스의 금요강습회는 붕괴되고, 직접 행동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받던 사이온 지내각이 물러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실시되었다. 사회주의 출판물은 나오는 대로 발행 금지령을 당했으며, 결국 대부분 폐간되었다. 집회마다 번번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해산에 불응하면 공권력으로 진압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통제와 탄압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질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⁷⁴ 재일 중국인 아나키스트 운동도 치명적 ○니타격을 받아 해체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적기사건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위축되었을 때 고토쿠슈스는 고향에서 휴양하고 있었다. 그는 곧 도쿄로 돌아와 평민사를 중심으로 「자유사상」을 발간했으나 계속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즈음 그의 생각은 천황제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고토쿠슈스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천황제를 비판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천황제를 회의했다고 해서 천황을 암살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평민사에 드나들던 젊은 청년들 때문에 문

제가 일어난다. 혈기 넘치던 청년들은 일본 정부는 물론 천황제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실제로 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몸가짐이 정부당국의 울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1910년 5월 25일 직공미야시타다키치가 폭탄을 제조하다 발각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대역 사건이 시작되었다. 미야시타다키치, 니무라 다오, 니타토카시, 후루카와 리키사쿠 등 4명을 검거한 정부당국은 사회주의자들이 폭탄으로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의 검거로 시작된 체포 열풍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백 명의 사회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가운데 고토쿠슈스이와 그의 아내 간노스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토쿠슈스이는 원고집필 도중에 갑작스럽게 끌려갔다. 정부는 형법 제 73 조 위반(대역죄)으로 모두 26 명의 사회주의자를 기소해 특별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서두르기 위해 취조나 공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한 26 명 가운데 24 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나머지 두 명도 중형에 처했다.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 가운데 12 명을 다음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사전 계획된 유화 조치도 있었지만, 정부는 형이 언도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고토쿠슈스이를 비롯한 12 명을 전격 처형함으로써 전국민을 다시 한번 경악케 했다. 아마도 국내외에 항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처형을 앞당겼을 것이다.

이 사건은 전 부날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었다.²⁵ 만일 고토쿠슈스이가 젊은 이들의 암살 모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상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토쿠슈스이가 암살 계획을 지휘했다는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대역 사건은 일본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계 산 아래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바로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당시 고토쿠슈스이, 가타야마 센 등이 한일 합방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정부로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대역 사건만큼 좋은 구실이 없었을 것이다. 대역 사건은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대부분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조작된 것들이어서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고토쿠슈스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대역 사건은 지금까지 분명 한 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토쿠슈스이의 옥중 생활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선각자로 각인시켰다. 그는 사형 직전 남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반역 사상을 기술했다. 옥중에서 변호인에게 보낸 진술서에서는 ‘권력과 무력에 기대는 강압적 통치가 없어지고 고도의 결합된 상호 보조의 공동 사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는 자기 변호를 하기보다는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직접 행동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아나키즘을 오해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취조나 공판 과정에서 아나키즘과 테러리즘의 차이점, 사회혁명의 정당성, 직접 행동론의 의미와 같은 문제들을 성실히 기술하고, 특히 동

1920년대 후반 신채호는 아나키스트 운동에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 그는 1927년 9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이 단체의 존재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1928년 6월에 조직한 동방무정부주의 자연맹과 같은 단체일지도 모른다)에 조선 대표의 자격으로 가입했다. 다음해 4월(?)에는 조선무정부주의자 베이징 회의의 의뢰를 받고 〈선언문〉(혹자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서 발표한 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했다. “세계의 무산 대중 그리고 동방 각 식민지 무산 대중의 피와 가족과 살과 뼈를 짜먹어 온 자본주의 강도 제국 야수의 무리는 지금 그 창자와 뼈가 터지려 한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문은 1) 불순한 조선 민족 운동 반대, 2) 모든 정치 운동 부정, 3) 사회비공산전제 배척, 4) 공산당의 애매한 사대주의 사상 청산 등을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도 〈조선 혁명 선언〉과 같이 파괴와 건설의 논리를 선전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각 국가의 동시 발달적인 혁명을 주장했다.

당시 신채호는 크로포트킨의 글이 조선의 병에 가장 잘 맞는 약이라고 하면서도, ‘조선식 아나키즘’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조선식 아나키즘이란 신채호 아나키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글에서 그 뜻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 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 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순주의가 들어 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의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으니 이를 특색이라 칭하면 노예의 특색이다.”⁷¹ 이처럼 그의 조선식 아나키즘은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던 과거 국수주의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다. 민족주의 사학을 제창할 때 전제주의와 봉건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한국인의 자주성 회복을 희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나키즘을 수용한 다음에도 여전히 전통 문화에 대한 선별적 비판을 통해 조선의 특색과 서양의 아나키즘을 결합하려 했다. 여기서 우리는 류스페이의 이른바 ‘중국적 아나키즘’과 유사한 면을 발견하게 된다.

앞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상하이 시적 국수파 지도자였던 류스페이는 전제주의와 봉건 문화를 비판하고 중국 고대로 복귀할 것을 염원하면서 유럽의 문예 부흥 시기가 중국에서도 재현되길 기대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후에는 다시 전통적인 원리를 근대적인 가치에 결합해서 양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아나키즘 사회 혁명을 꿈꾸었다. 당시 류스페이는 국학과 아나키즘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런 특성은 신채호와 매우 비슷한 점이다.

한편 신채호의 아나키즘은 그의 문학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용과 용의 대결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소설은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을 일삼는 지배자들이 사는 천국 天國과 이들이 로인해 고통받는 피지배자 인민 중들이 사는 지국 地國을 설정하고, 지배자들의 충실한 수인 천국의 용 ‘미리’와 민중의 편에서 민중 혁명을 준비하는 지상의 용 ‘드래곤’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결국 민중의 상징인 드래곤이 이상제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고 미리의 천국을 멸망시켜 지국의 민중 혁명을

트운동이국제아나키스트운동사에서매우예외적인경우로비쳤기때문에이런분석이나왔을것이다. 사실한인아나키스트의내면에는민족주의의식이 지나치게 강렬하며, 정치지향적인경향까지도내포하고있었다. 따라서크림의지적은경청할만하다. 하지만우리는서양의아나키즘원론의자대만을가지고동아시아사회의아나키스트운동을평가한다면이지역의특수한사정을간과할위험이있다.

아나키스트들은국제주의를분명히옹호한다. 왜냐하면민족주의나국수주의를또하나의권력을생산하려는시도로바라보기때문이다. 그들은기본적으로민족국가란절대다수인일반민중의의지와무관하게일부사회엘리트의이해를위해복무한다고믿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은민족해방투쟁이유용하다고믿고있다. 민족해방운동가들이추구하는민족국가의독립이기본적으로는권위적이지만제국주의열강이식민지를억압하고착취하는것보다는낫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여기서우리는근대의민족주의는“영토와국경을확장하는”침략적인제국주의로나타나기도하고, “타민족의간섭을반대하는”민족해방운동으로도나타난다는사실에주목해서민족주의가무척다의적인개념이란사실을받아들여야한다.

서양의민족주의와동아시아의민족주의는각사회나국가가가치한특수한상황에따라나를대로제기능을수행했다고볼수있다. 단순히게말하면, 유럽의민족주의는보수적인정치이데올로기 - 예를들어파시즘 - 와결합하는경우가많았다면, 동아시아와같은제 3 세계의민족주의는급진적인정치이데올로기 - 예를들어사회주의 - 와결합하는경우가많았다. 즉서양열강의제국주의적위협과봉건사회내부의구조적위기는, 동아시아사회에서양과는크게다른새로운민족주의경향을불러일으켰다는것이다. 여기서우리는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결합가능성을엿볼수있다. 아나키즘은종족주의적민족주의를반대하는사상이지만, 동시에종족주의를비판해새로운민족주의의해석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종족주의와같은좁은의미의민족주의가아닌‘구망도존救亡圖存’의위기의산물인넓은의미의민족주의는 20 세기의시대조류였다. 그넓은틀안에는사회주의든공산주의든아나키즘이든, 또는서양에서들어온그어떤사상이든상관없이수용할여지가있는것이다.⁷⁰ 20 세기동아시아사회에서어떤사조가민족주의란화두에서자유로울수있었는가.

아나키즘이동아시아사회에빠르게자리잡을수있었던이유는사회내부의절실한요구가있었기때문일것이다. 앞장에서언급했듯이그주요한토양가운데나가진화론이다. 대다수의연구자들이동의하듯근대동아시아사회에가장큰영향을준외래사조는진화론이었으며, 이는당시서유럽의진화론이전세계에서널리유행했다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진화론의맥락에서볼때사회진화론이상호부조론으로이행된것은아나키즘이사회진화론의모순을수정하는기능과동시에민족주의를재해석하는역할을담당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지들에게세심한주의를기울이는따뜻함을보였다. 그의최후의모습은메이지시대일본아나키즘이지향하는바를보여주었다.²⁶

아나키스트고토쿠슈스이의사상은같은시기에활동한일본의국가사회주의자기타잇키(北一輝)와비교하면좀더선명하게이해할수있다. 권력의소재를개인에두고고토쿠슈스이는혁명의주체를계급이라고보았으나, 권력의소재를국가에두고기타잇키는혁명의주체를민족이라고보았다. 이런관점에서고토쿠슈스이가일본과중국등피압박계급의국제적연대를제창했다면, 기타잇키는피압박민족인일본과중국의동맹을주장했다. 또한고토쿠슈스이가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에기반해생존경쟁을수반하는사회진화론을비판했다면, 기타잇키는사회진화론에담긴생존경쟁의관점을받아들여부강한민족국가·국민국가건설을강조했다. 이런차이점은국제연대문제에도그대로반영된다. 앞서보았듯이고토쿠슈스이는아주화친회와같이민족과국가를뛰어넘는동아시아사회주의자의연대를제창했다. 반면에기타잇키는일본이우선개조에성공하고중국이민족주의혁명을달성하면일본과중국이동맹을형성하고, 만약인도가독립하면동아시아연맹을구축해최종적으로는세계연방을만든다는구상을가지고있었다. 두사람모두중국혁명을적극적으로지지했고궁극적으로는초국가주의를지향했지만, 민족과국가문제에대한관점은전혀달랐다. 이런두가지흐름은다음시대에도계속되어개인을맨앞에두는아나키즘과국가를제일로하는국가사회주의로이어진다.²⁷ 두사람의차이점을알면중국과한국에서활동한아나키스트와국가사회주의자의차이를이해하는데도도움이된다.

그런데고토쿠슈스이가반제의관점에서피압박민족의반제국주의투쟁을강조하기는했지만식민지국가의민족해방과독립투쟁에대한인식이부족했다는평가를받기도한다. 서양의제국주의와일본의군국주의를비판하지만동시에피압박민족의민족주의및애국주의사조도부정함으로써서양의원론에만충실했지동아시아의특수한상황을간과했다는것이다.²⁸ 그의반제국주의·반군국주의이론을오스기사카에가완성했다고보는것은그때문일것이다.

대역사건후사회주의자에대한일본정부의탄압은극에달해모든언론집회의자유를빼앗겼다. 이즈음정부의태도는신경과민수준으로, 사회라는글자만들어가면무조건위험하게여길정도였다. 결국정부의지속적인탄압으로말미암아일본의사회주의운동은겨울잠에들어간다. 적기사건과대역사건이라는두차례에걸친사회주의와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탄압이메이지시대사회주의운동의좌절을가져온것이다. 하지만이런탄압사건을계기로일본의아나키즘은내부의체계를다듬어가고있었다.

4. 일본아나키스트운동의재생 - 오스기사카에

대역사건과같은당국의탄압으로말미암아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한참동안 침묵을지켰다. 이시카와산시로는유럽으로탈출해 10 여년동안망명생활을했으며, 야마가타지도탄압을피해대륙으로건너가중국의아나키스트운동을도와주고있었다. 그러던중적기사건으로검거되었다가먼저출옥한사카이토시히코가몇몇동지들과함께생계유지의방편으로평범한출판사를설립했다. 뒤이어출옥한오스기사카에, 야마가와히토시등이가세했지만얼마동안조용히지내야했다. 이들은적기사건으로옥중에있었기때문에대역사건의풍파를피할수있었고, 그것이어쩌면그들의생명을유지시켰는지도모른다.

그러다가 1912 년 10 월오스기사카에와아라하타간손이「근대사상」을발행함으로써사회주의운동은다시지개를켜는다. 이잡지는오스기사카에를중심으로하는다이쇼시대일본아나키즘의새로운출발을알리는것이였다. 이는학생과지식인을상대로하는종합교양지의성격을띠고있었으나, 고토쿠슈이의정신을이어받아전쟁을반대하는내용도많이실었다. 「근대사상」은독자들에게좋은반응을얻었는데, 훗날중국최초의마르크시스트가된리따자오(李大釗)도일본유학중탐독했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이잡지역시 1914 년 9 월에폐간당했는데, 오스기사카에는같은해 10 월에다시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평민신문」을창간했다. 창간호에서편집자는고토쿠슈이의사상을이어받아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색깔을분명히드러냈다. 그러나당국의탄압은여전해 1915 년 3 월이신문도더이상버티지못하고폐간되고말았다. 그후에도이런종류의신문과잡지의창간과폐간그리고복간이반복된다.²⁹ 이시기에‘근대사상’이나‘평민신문’이란같은제목을단신문잡지가여러차례등장하는것은이런까닭에서다.

당시「평민신문」중간호에는다음과같은글이실렸다. “개인적사색의성취가있고서야비로소우리는자유로운인간이되는것이다. 아무리자유주의를표방한다할지라도, 그것이남의판단에서빌려온것이라면, 그사람은마르크스나크로포트킨의사상적노예에불과할것이다. 사회운동은흔히일종의종교적광신을수반하는동시에이런노예를만들어내는경향이있다. 우리는어떤경우에도노예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여기서우리는교조와권위를거부하는오스기사카에의사상을엿볼수있다. 그는어떤이론이나사상도절대화하는것을싫어했다. 유럽의아나키즘철학역시예외는아니었다. 그는자기자신의충분한경험과자유로운판단에따라옳은결론만받아들였으며, 이러한실증적정신으로평생을일관했다. 권위에굴복하지않고자신의판단에따라사색하고생활하는것, 어떤지도자의논리에도엿매이지않고자기자신의인생을다듬어나가는것, 이것이바로오스기사카에의인생관이자사회관이였다.³⁰ 그는이미고토쿠슈이의직접행동론에서진일보해아나키즘의목표와이상에서더욱확고부동한반권위주의·반권력주의관점을확립함으로써일본아나키즘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었다.

오스기사카에는아나르코생디칼리즘운동을활성화해고토쿠슈이의사상을실천하면서동시에한걸음더나아갔다. 사실그의시대에는노동자중심의아나키

이와는달리김성국은신채호가 1923 년이전에이미아나키스트로전환했다고판단한다. 이는신채호가 1920 년대초에이미중국및한국아나키스트와활발히교류했다는사실에기초한것으로, 1920 년초부터〈조선혁명선언〉을집필한시기사이애아나키스트가되었을것이라추정하고있다.⁶³ 한편이호룡은 1920 년대이전에이미한인사회에아나키즘이상당정도수용되었다고주장하면서, 신채호역시 3·1 운동을통해민족의저력을실감해아나키즘을적극받아들였고, 얼마후〈조선혁명선언〉에서그구체적인사상을표출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조선혁명선언〉을집필하기전에아나키스트가된것으로추정한다.⁶⁴

셋째, 민족해방운동과관련해신채호의아나키즘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라는문제를보자. 우선장을병은신채호가아나키즘을신봉한것은민족주의사상과실천적인독립운동을전개하는과정에서채용한일시적인방편이었지, 궁극적으로는민족을포기하고국제주의를지향하는일반아나키스트들의교조적주장과는다르다고얘기한다.⁶⁵ 신용하도민족주의자라는관점에서신채호를파악하기때문에나름대로민족해방운동과아나키즘의관계를서술하면서결국신채호가“만년에민족주의를더욱심화발전시키지않고무정부주의로전환한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⁶⁶이라고말한다. 이두사람은신채호가서양근대의민족주의를심화발전시키지못하고크로포트킨에게접근해민족주의를근본적으로회의하게된것을 안타까워한다.⁶⁷

이에반해하기락과김성국은민족주의와아나키즘을이것이아니면저것이라는양자택일의관계가아니라, 이것으로저것을내실화하는상호보완관계에있는것으로파악함으로써다른의견을내놓는다. 신채호의경우감성적민족주의라는원색의바탕속에아나키즘이라는이념적내실이성숙해갔다고보는것이다. 그들은신채호의민족주의가역사적조건의변화에대처하는과정에서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또는혁명적진화론으로성숙한것으로보아, 신채호의아나키즘이야말로그의민족주의가이른최고의단계라고생각한다.⁶⁸ 이런해석의배경에는아나키즘은민족주의를얼마든지포용할수있으며, 처음에는아나키즘이민족주의의틀안에서성장했지만, 나중에는오히려민족주의가아나키즘을통해성숙했다는관점이 깔려있다.

이처럼연구자들은비록몇몇문제에서의견을달리하지만모두‘민족주의’란대명제와관련해아나키즘을설명하려고한다. 이와관련해, 영국학자크럼(John Crump)의견해를살펴볼필요가있다. 그는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다룬글에서, 일본과중국의아나키즘과비교해볼때한국의아나키즘에는민족주의색채가너무 짙다고하면서그원인이일본의식민통치에있다고파악한다. 이점에서는공산주의운동역시예외가아니라고말한다. 하지만이처럼“충격적이며일탈적인”한국의아나키즘은특수한것으로, 한국의아나키즘은민족주의에서출발했고민족주의때문에타락했다고비판했다. 심지어그는아나키즘이식민지영토였던지역에 제대로뿌리내린경우가없다고까지생각한다.⁶⁹ 물론서양인의눈에한국아나키스

주의의내부모순을극복하고강권주의와제국주의를철저하게비판할수있었다고 본다.

신일철도이런관점에동의한다. 그는“신채호의전기자강론에서는자존경쟁을통해살아남은자강의강자만을긍정할뿐, 약자의생존을거의무시해도무방한 것이었다. 서구계몽사상에서비롯된이와같은진보사관에서는강자인제국주의의식민지침략을옹인할뿐만아니라약자지배를정당화시켜약소민족의역사의식이될수없었다. 이에그는크로포트킨의상부상조론을수용해그의자강론에서우승열패대신상부상조의원리를도입했다. 그는무정부주의에서일제강권지배를부정할수있는논리와약자의생존권을옹호하기위한상부상조의원리를취한것이다”라고말한다. 그리고신채호의“아我和비아非我的투쟁”사관이“아와비아의상조”에의한국제적연대성을추구하게된다고풀이하고있다.⁵⁹ 그런데그는신용하와마찬가지로, 아나키즘을추구하면결국민족주의를부정하게되므로다시한번자기모순에빠지게되었다고지적한다.

이와는달리김성국은자강론적사회진화론과아나키즘적상호부조론의대립관계에의문을제기한다. 그는“신채호가시민적·자강적민족주의로부터저항적·혁명적민족주의를거쳐무정부주의에이른것은사회진화론에임각한민족주의론의내부모순을해결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정규적인무장독립투쟁의출구가봉쇄되던당대의현실적조건의변화에대응하는사회진화론과민족주의의자기성숙과정”이라고판단한다.⁶⁰ 다시말하면식민지배체제가강화되면서봉건적사회내부의위기에대응하는시민적민족주의보다는제국주의의침략에따른외부적위기에대응하기위한저항적민족주의의색채가강화되는데, 그과정에서아나키즘을수용했다는것이다. 그는신채호가민족주의를포기한것이아니라오히려더욱적극적으로발전시켰다고본다.

둘째, 신채호가아나키즘을언제부터신봉했는가라는문제를설명하면서신용하는“신채호가〈조선혁명선언〉을집필할때유자명등을통해아나키즘을알기 시작했고이선언에도아나키즘적요소가다분히투영되었으나그는여전히민족주의자였지아나키스트는아니었다”고단언한다. 그는신채호가아나키스트가된시기는빨리잡아도 1925 년부터라고보는것이합당하다고주장한다. 이전의시기는민족주의사상에아나키즘의방법을포용한혁명적민족주의자의시기였다는것이다.⁶¹

신일철은이정규의회고에근거해 1923 년부터신채호가아나키스트임을자임했다는사실, 〈조선혁명선언〉에이미아나키즘의민중직접혁명론이나타나있었다는점에주목한다. 하지만그역시〈조선혁명선언〉을분석한결과“이선언의사상적논조는어디까지나이족통치의파괴에집중된민족주의사상이며투쟁수단으로서무정부주의적테러리즘의채용을선언한것에불과하다. 그러나이선언을계기로신채호의민족주의사상은민족에게서민중에게로, 국권주의적국가에서자유에로 옮겨갔다”⁶² 고보았다.

스트운동이활발한시기였다. 1919 년 8 월에오스기사카에는동지들과함께「노동운동」을창간했다. 이잡지의한눈설에서그는노동운동이임금인상이나노동시간단축과같은단순한생물학적또는금전적요구에그쳐서는안되며, 인간해방이란근본적인목표를설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노동자는복종의습성과노예적생활에서해방되어야하는데, 자본가에게서해방되어야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지도자의권위에서도해방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 노동자의자발적인행동이아말로노동운동의기초이자아나키즘사회의시금석이라는주장이다.

오스기사카에는「노동운동」(이잡지역시및차례의폐간과복간을거듭했다) 중간호에서도이른바백지주의白紙主義이론을편다. “인생은결코미리기록된완결된책이아니라, 각자가그속에한자또한자기입해나가야하는백지와같은것이다. 인간이살아간다는것, 그것이바로인생이다. 그럼노동운동이란무엇인가? 이문제에대한해답또한마찬가지다. 노동문제는노동자의인생문제다. 노동자는노동문제라는백지로된한권의큰책을가진사람이다. 그는자신의운동으로한자또한자, 한줄또한줄, 한장또한장스스로써넣어야한다.”그는여기서도반권위주의원칙에따라자신의모든문제에주체적으로대처할것을강조하고있다. 그는개인의창의성·주체성·자유발의를강조하고, 타인의지도·명령·지령에반대했으며, 권위를추종하는복종과망언을배격했다. 이러한원칙은노동운동에서도마찬가지인데각조합의자유발의, 자유합의, 조합간의자유연합을주장하면서권위적우상타파와신질서창조를강조했다. 그에게진정한노동운동이란노조지도자의노선을충실히따르는것이아니라, 노동자스스로이루어나가는것을의미했다. 이러한관점은공산당이주도하는노동운동과는근본적으로다른것이다.³¹

1917 년러시아혁명의성공은동아시아사회에볼셰비즘의물결을일으킨다. 그리고그영향으로 1920 년대를전후해나라마다공산당이설립되기시작했다. 일본에서는과거고토쿠슈스이와함께「평민신문」을창간하고반전운동을전개했던사카이토시히코와야마가와히토시가볼셰비즘을받아들였다. 그들은일본공산당창당에참가하면서오스기사카에와다른길을걷기시작했다. 하지만이때오스기사카에는러시아혁명을어떻게평가하느냐하는문제에잠시관망하는태도를보였다.

그러던중 1920 년 5 월에는사회주의계열노동조합들이연합해제 1 회메이데이행사를치렀다. 이것은제 1 차세계대전으로인해불경기가심화되자노동자의권익을지키기위해준비한행사였다. 여기서노동자들의단결을위해노동조합상호간의횡적유대를지탱해줄상설기관을설치하자는얘기가오간끝에간토지방의노동조합동맹회가결성되었다. 그런데이조직안에서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사이에만목이싹트기시작했다. 같은해 12 월에는양파벌의대립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여러사회주의파벌이다시모여대동단결을내걸고일본사회주의동맹을결성했다. 발기인으로는오스기사카에, 이와사사쿠타로같은아나키스트를비롯해사카이토시히코, 야마가와히토시등마르크시스트들을포함한 30 명의저명

한사회주의자들이참여했다. 이동맹은기관지「사회주의」를내기도했으나, 다음해 5 월당국의명령으로해산해야했다.

1920 년 10 월오스기사카에는극동사회주의자회의에참석해달라는한인동지의연락을받고상하이로향한다. 중국, 조선, 일본, 러시아등여러나라대표가모인이회의는동아시아에공산주의의거점을만들기위해코민테른이주최한모임이었다. 당시오스기사카에는러시아혁명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었으며, 볼셰비키와의공동전선에대한기대를버리지않고있었다. 그는이회의에서코민테른일본지부를설치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나, 이를거절하고다만정보교환을위해위원회를만들겠다는약속을하고귀국했다. 이렇게하여일본사회주의운동은국제화의길을걷는다.

다음해 12 월에도모스크바에서극동민족대회가열렸다. 이때참석한일본대표들을보면공산주의자보다아나키스트가많았다고한다. 대부분노동운동단체의대표였던그들은대회에출석하는것보다는러시아의진상을파악하는데힘썼다. 이런일련의접촉을통해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러시아의현실에크게실망했으며, 볼셰비키정권의통치아래노동자와농민의자유가희생당하고있다고판단했다. 결국그들은볼셰비키와협력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결론을내렸다. 그후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사이에서존재하는이념의차이가점점표면으로노출됨으로써노동운동을중심으로격렬한쟁이일어났다. 그런와중에 1922 년 7 월일본공산당이창당되었다.

국내에서일본볼셰비키와연합하는것을단념한오스기사카에는국제사회주의운동에관심을쏟았다. 때마침 1923 년 2 월베를린에서열리는산·티미에인터내셔널 50 주년기념집회에참가해달라는초청장이도착한다. 당시오스기사카에는러시아혁명과정에서일어난아나키스트계열의크론슈타트의수병반란과우크라이나의마호노농민운동에큰관심을가지고있었다. 두사건모두러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과관련이있는움직임이었다. 그는유럽으로가서진상을좀더자세히알아보고, 아울러외국아나키스트와의국제적연대를모색하기위해집회에참석하기로결심한다. 우여곡절끝에그는중국아나키스트의도움으로상하이를거쳐프랑스마르세유에겨우도착할수있었다. 그는곧장파리로가서국제적으로유명한아나키스트들과접촉했으며, 5 월 1 일파리교외에서열린메데이행사에참가해일본의노동운동에관한연설을한다. 이때경찰에검거되어불법입국자로수배중이라는사실이밝혀지자퇴거명령을받고같은해 7 월일본으로돌아온다. 오스기사카에는이여행에서유럽의아나키스트들과의교류를통해다시금러시아의볼셰비키혁명은아나키즘의원리와근본적으로상충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1923 년 9 월 1 일간토대지진이일어났다. 일본의위정자들은천재지변으로인한정치적위기를모면하기위해계엄령을선포하고“조선인과의사회주의자들이폭동을일으켰다”는유언비어를퍼뜨린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바로이때군과경찰그리고자경단등의해 6 천명에달하는한인과일본인사회주의자들이대량학살되었다. 박열이고토쿠슈스이처럼다른대역사건에연루되어체포된것도이즈음

통치를파괴하고유적조선을건설한다. 2) 특권계급을파괴해자유적조선민중을건설한다. 3) 경제적약탈제도를파괴해민중적경제제도를건설한다. 4) 사회적불균형을파괴해민중전체의행복을위한제도를건설한다. 5) 노예적문화사상을파괴해민중문화를건설한다.”신채호는여기서“파괴가곧건설”이라는바쿠닌의원리를채용하기는했지만, “모든혁명은민중속에서시작되었다”는민중혁명론의제창은, 엘리트주의를비판해평민주의를주장함으로써기존의민족해방이론을한단계 끌어올린것이다. 또한그가“십만의군대를양성하는것이한발의폭탄만 못하며, 수천장의신문이나잡지가한번의폭동만 못할지니라”고직접혁명을주장한것은이승만의외교론이나안창호의준비론에내재한엘리트주의를겨냥한것이기도했다.

신채호의〈조선혁명선언〉은한마디로직접행동의방법을채용해의열단의폭력투쟁을이론화한것이다. 비록 1924 년 4 월에결성된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는참석하지못했으나, 그전에이미모든한인이혁명운동에참여하자는이른바민중직접혁명론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신채호의아나키즘과관련한논쟁은바로이쯤에서발생한다.

지금까지신채호의민족주의와아나키즘에대해많은연구가이루어졌지만, 여전히몇가지문제는논란거리다. 그중에서도 1) 왜아나키즘을수용했는가라는사상적배경에대한문제, 2) 언제부터아나키즘을신봉했는가라는시점의문제, 3) 신채호의아나키즘을민족해방운동과관련해어떻게설명할것인가라는평가의문제가대표적인것이다. 이제기존연구의쟁점을간단히정리하고필자의생각을간단히제시하고자한다.⁵⁷⁾

첫째, 신채호가왜아나키즘을수용했는가라는문제를놓고정치적배경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하지만, 사상적배경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정치적배경으로는 3·1 운동의영향으로민중의힘을자각했다는점, 상하이임시정부의분열에대한환멸을느꼈다는점, 독립군의항일운동이난항을겪었다는점, 국민대표회의의실패등을지적할수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일부민족주의자의개량주의와공산주의자의사대주의에강한불만을느꼈다는것도포함된다. 그리고사상적배경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사회진화론의내부모순을자각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상호부조론을흡수했다는관점에서해석하는경향이강하지만, 이견이있다.

여기서“(사회진화론에기초한) 민족주의이론의내부모순”에대해서는신용하의정리를참고할만하다. 그는“민족주의와제국주의를사회진화론에의거해모두하나의경쟁의원리로서해석한것은그의제국주의에대한이론적비판능력이근본적인한계를설정하는것이였다. 왜냐하면제국주의를국제간의민족경쟁에서적자·강자·우자·승자로보는것은우승열패약육강식의사회진화론의원리에의거할때에는강권을목시적으로인정하게되며, 또한제국주의와의외경에서패배한민족의도태를‘공례公例’로서목시적으로인정하게되는요소를내포하고있기 때문이다”⁵⁸⁾라고설명한다. 따라서신용하는신채호가아나키즘의상호부조론을수용하여사회진화의원동력은경쟁이아니라상호부조라고설명함으로써, 민족

신채호가국수주의관점에서역사를연구하게된것도사대주의적인역사인식을비판하기위해서였다. 그런데국수주의는지배계층의통치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높고, 종족주의로빠져자민족우월주의로호를가능성도있었다. 일본의사례가이를잘보여준다. 하지만그의국수주의는그런위험으로부터어느정도거리를두고있는듯하다. 아마도민중을교화의대상으로만여기는일부엘리트주의에심취한이론가와달리실제현장에서사상을실천한운동가였기때문에이런균형이가능했는지도모른다.

1920년대이전신채호의민족주의사상에는제국주의와민족주의를대립관계로인식하며, 제국주의자의침략에대항해민족주의자의저항을정당화하는논리가어느정도마련되어있었다. 이러한그의민족주의는훗날아나키즘에쉽게다가가도록만든한가지계기가된듯하다. 신채호가‘자강自強’에서‘혁명’으로전화한과정은‘민족’에서‘민중’의존재를발견하는과정과어우러진것이었다.

신채호는 3·1 운동의결과상하이에임시정부가수립되자여기에참여했다. 그는임정에서개량적인민족주의노선에만족하지못하고무력항쟁을주장하는과격파의일원이되었다. 당시그는이승만과안창호가주장한외교로나준비론과같은온건노선을비판하고임시정부의전면개조를주장했지만새로운이론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사상적으로방황하고있었다. 신채호가아나키즘에주목한것은이무렵이다. 여기서사상의방황이란그의자강론(여기서자강은진화의격의적인번역어)에내재된자기모순을의미한다. 즉생존경쟁과약육강식의국제사회에서강자만이살아남고약자는도태된다는자강론의발상은조선의부강을위해민중의자각을요구하는데는유용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강자인일본이약자인조선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는논리이기도했다. 이런자강론의모순을넘어서는데아나키즘은매우매력적인대안을제시한듯하다. 아나키즘의반강권논리는종족주의의틀을넘어서약소민족의국제연대를통해반제국주의를주장한다는점에서자강론에서더욱매력적이었다. 나아가암살과파괴같은폭력수단을긍정하는아나키즘에서일제에저항하기위한무기도발견할수있었다.

앞서말한것처럼신채호가아나키즘을받아들이게된것은중국아나키스트들과교류하면서부터다. 이들과의접촉을전후해그는크로포트킨, 고토쿠슈스이, 스푸의저작들을두루섭렵했던것으로보인다. 특히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이나고토쿠슈스이의『기독말살론』, 중국인의「신세기」나「민성」의여러논설들은그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 그러던중 1922년겨울의열단단원이자아나키스트인유자명에게서의열단단장김원봉을소개받고, 그의요청에따라다음해 1월〈조선혁명선언〉(일명‘의열단선언문’)을발표했다. 이선언문은널리알려진것처럼일본제국주의에대항하는선언문 가운데가장과격하고급진적인것이다.

“강도일본이우리의국호를없이하며, 우리의정권을빼앗았으며, 우리의생존적필요조건을다박탈했다”라고시작하는이선언문의핵심은일제의현체제를파괴하고조선의새체제를건설하자는것이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이쪽

이다. 그리고이혼란상황에서많은일본인사회주의자와노동운동가들이희생되었다. 그가운데에는일본최고의사회주의운동가인오스기사카에도포함되어있었다. 오스기사카에는어느날아내와어린조카와함께현병대로끌려갔다. 그들은무참히살해되어우물에던져졌다. 그의나이 39 세. 이로써다이쇼시대일본아나키스트운동의탁월한지도자였던오스기사카에는역사속으로사라졌다. 그의죽음이알려지자청년아나키스트들은복수를위해테러를감행한다. 이런테러활동의시작은그후일본아나키스트운동이전개된양상과관련해미묘한변화를암시하는것이었다.

제 2 장 중국: 군주제와 군벌정부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신 문화운동

1.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20 세기초청왕조가국내에설립한신식학당이나해외로파견한유학생사회에서혁명가들이출현한사실은역사의아이라니다. 국내에서는신흥대도시인상하이를중심으로진보적인지식인들이모이기시작했다. 그들이조직한단체 가운데대표적인것이‘중국교육회’로, 여기서펴낸「아사경문俄事警聞」이나「경종일보警鐘日報」는이미부분적으로서양의아나키즘을소개하고있었다. 훗날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지도자가되는우즈후이(吳稚暉), 장타이옌, 차이위안페이(蔡元培) 등도중국교육회에참가하고있었다. 한편해외유학생은주로재일유학생사회를가리키는데, 이는이들이해외유학생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일본에유학한학생들은일찍부터동향회와같은여러모임을만들고, 그중일부는조그만서클을만들어반청혁명의여론을전파했다. 항구도시상하이는일본으로가는관문이어서이지역혁명가들과일본의유학생사회는긴밀한연락망을구축하고있었다. 당시중국의급진적지식인들이직면한절박한문제는서양열강의제국주의침략에대응하고중국사회를정체시킨전제주의봉건문화를혁신하는것이었다. 하지만무엇보다제 1 과제는군주제개혁또는타도였다. 이를위해여러가지서구의신사조를수용했는데, 아나키즘도그가운데하나였다.

1903년 청왕조는 상하이 지역신문 「소보蘇報」를 반청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폐간시켰다. 이 사건으로 장타이엔과 쑤우룽(鄒容) 등이 체포되고, 중국 교육회와 같은 진보단체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혁명운동을 처음으로 고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막형성되기 시작한 혁명파들은 더 이상 청왕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고 체제전복을 위해 암살과 폭동과 같은 비상수단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 바로 일본 유학생 사회를 통해 들어온 러시아 허무주의와 허무당원의 활동이다. 그런데 허무주의(아나키즘도 포함)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혁명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혁파 인사들이 더 일찍 소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중국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진 청왕조에 대한 절망감에 있다. 청일전쟁의 패배와 변법운동의 좌절, 나아가서 양열강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청왕조의 모습은 청말 지식인들의 분노와 좌절을 자아냈고, 의화단 운동이 실패하자 그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따라서 개혁파든 혁명파든 상관없이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에도 러시아처럼 허무당원이 출현하기를 기대했다.³²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의 저작 가운데 토쿠슈스이의 『장광설』, 후쿠이준조의 『근세사회주의』, 니시카와 코지로의 『사회당』, 게무야 마센타로의 『근세무정부주의』 등이 곧바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들을 번역한 재일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혁파이든 혁명파이든 상관없이 청왕조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었으므로 호감을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러시아의 허무주의나 허무당원을 보는 태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개혁파도 허무당원의 대의명분에는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테러와 같은 방법에는 큰 흥미를 느꼈다. 아마도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거창한 이론 체계에 관심을 기울기 전에 우선 중국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법에게 주목한 듯하다.

앞의 번역자들 가운데 토쿠슈스이의 『장광설』에 나오는 “무정부주의가 유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국가 사회에 절망했기 때문이며, 전제 정부는 무정부주의 의제 조공장이다”라는 말은 당시 혁명가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다. 물론 이 시기의 토쿠슈스이는 사회민주주의자로, 아직 아나키스트는 아니었다. 중국인들에게 아나키즘을 널리 알린 것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게무야 마센타로의 편저 『근세무정부주의』다. 이 책은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뉘어 여러 차례 중국인의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진이(金一)란 사람이 『자유혈自由血』(1904)이란 제목으로 전체 내용을 의역하기도 했다.³³ 중국인들이 허무당원을 아나키스트로, 허무주의를 아나키즘과 동일시하게 된 데도 이 책의 영향이 크다.

번역자들 가운데 가장 열광적으로 러시아 허무당을 찬양한 사람은 양두성(楊篤生)이다. 그의 글에는 소위 암살 시대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허무당! 허무당!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숭배한다! 너희들이 실행한 일들은 개새끼 같은 황제를 죽일 수 있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구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일도 천지를 놀라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는 오래도록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과 얘기해, 모

를 조직했다고 전한다. 이런 산발적인 활동들은 결국 1924년 12월 서울에서 광철, 한병희, 이창식 등이 흑기연맹을 조직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창립총회를 준비하던 중 해체되자, 다음해 9월에는 서동성, 방한상 등이 대구에서 진우眞友연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이른바 대역사건으로 구속된 박열을 지원하는 활동을 열심히 펼쳤다. 비록 일제의 탄압 때문에 조직 결성과 해체를 반복했지만, 국내에서도 아나키스트 운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당시 민족해방의 논리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한인 혁명가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과 반권위주의를 주장하는 아나키즘 사이에 이론상 모순이 없다고 생각했다. 일제의 지배를 받는 한인들에게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곧 식민지 권력 타도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정부주의’란 용어는 일본 정부를 없애자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인 아나키스트에게 일제에 대한 투쟁은 곧 민족해방 운동이자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해방은 곧 민중해방이자 계급해방을 의미했다. 사실 유럽에서도 민족해방 문제와 아나키스트 운동의 친밀성이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푸르동이나 바쿠닌도 한때 민족주의 정서를 뚜렷이 내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유난히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나타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나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적었고 심지어는 정치 지향적인 모습조차 보였다.

일제 시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신채호를 예로 들어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자.

2. 신채호는 아나키스트인가

신채호(1880~1936)가 일제 시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이 시기를 조금 달리하기는 하지만 한 인물에게 동시에 구현되었다는 것은 한국 아나키즘을 이해할 때 반드시 살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향이 대다수의 한인 아나키스트에게 고루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충청도 의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다. 청년이 되어 성균관에 들어간 그는 1905년에 박사가 되었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구국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1910년 결국 조선이 멸망하자,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며 한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15년에는 베이징에서 신규식과 신한청년회를 만들었고 박은식, 문일평 등과 함께 박달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신채호는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국권 회복을 추구했다. 그의 애국계몽운동은 민중계몽을 통해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런 민족주의는 유럽의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다.

키즘을받아들였고, 1924년 4월 그들은 마침내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다.

한편 러시아의 맹인 시인에로 생코가 한인 운동가들에게 친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동아시아 3국의 아나키스트와 교류를 나눈 사실은 자주 발견된다. 에로 생코는 에스페란토 운동(세계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다. 당시 에스페란토어는 민족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제 연대를 꾀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이 채용한 문화 혁명의 한 수단이었다. 과거 일본의 오스기 사카에, 중국의 스푸등도 사회 혁명의 수단으로 에스페란토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인으로는 이정규가 이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밖에 베이징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기석, 심용해, 오남기, 정래동 등이 이끈 학생 활동도 있었다. 유기석과 심용해 등은 중국인 청년 아나키스트와 함께 흑기 연맹을 조직하고, 아나키즘 이론 연구와 선전 활동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아나키스트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듯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중한 인 아나키스트들이 펼친 운동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활발했다. 아마도 일본의 세력이 덜 미치는 곳이었고, 한인 혁명가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19세기 말 「한성순보」에서 유럽의 사회당이 나 러시아의 허무당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20세기 초에는 「만국공보」 같은 중국 잡지나 량치차오, 고토쿠스이 등의 저술 등이 들어오면서 테러리즘과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글들이 알려졌다. 중국 여행객이나 일본 유학생 또는 국내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⁵⁵ 아나키즘에 대한 국내 최초의 기록은, 신채호가 황성신문사에 재직하던 1905년 고토쿠스이(당시 에그는 아직까지 마르크시스트였다)의 『장광설』을 읽은 후에 아나키즘에 공명했다는 것이다. 그 후 1917년의 러시아 혁명, 1919년의 3·1 운동이 국내에 아나키즘을 포함한 사회주의를 전파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을 이 틀림없다. 하지만 초창기 한국에서는 마르크시즘·불세비즘·국가 사회주의·아나키즘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중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 사조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과격 사상이라고 알려졌다. 조금이라도 학식이 있다는 사람치고 사회주의를 운운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1920년 4월 에 조직된 조선노동공제회(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의 기관지 「공제共濟」, 1922년 3월 창간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을 보면 아나키즘을 소개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여기에 실린 기사는 주로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커뮤니티즘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슈티너의 개인주의 아나키즘도 다뤄지고 있다. 특히 조선노동공제회의 지도자인 고순흠은 아나키스트로 나중에는 일본과 제주에서도 활동했다.⁵⁶ 이 시기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지상에 아나키즘을 선전하다 체포된 사람들(장도원, 김경주 등)을 다룬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21년 10월(?)에는 일본에서 잠시 귀국한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박열이 흑로회

든 것을 배우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수단과 방법을 배워 똑같이 하고 싶다”고 절규했다.³⁴ 하지만 어투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그는 안정된 틀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수준에서 허무당을 숭배했다.

장지역시 양두성 못지 않게 과격한 사람이다. 그가 편역한 『무정부주의』(1903)는 1907년에 출간된 번역서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아나키즘 저작이다. 그역시 흥분된 말투로 이렇게 소리친다. “나는 만주족 전부를 죽이려고 한다! 복수의 대의를 선전하고 복수할 수 있는 장렬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나는 아시아 특산의 군주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아시아인의 수치를 씻어 아시아인의 광명을 밝히기 위해서다. 나는 정부관리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모든 특권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나는 재산가 자본가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한 나라의 경제를 고무평등하게 해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나는 결혼한 자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자유 연애로만 사공공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다. 나는 공맹교도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마다 그 진실을 깨달아 거짓도덕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다.”³⁵ 이처럼 그는 바쿠닌의 파괴와 건설의 주장을 어설피게 설교하는 동시에 만주족에 대한 증오가 충만한 복수주의를 역설했다. 근대 중국 최초의 아나키스트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장지역의 아나키즘은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³⁶

양두성과 장지역은 1903년을 전후하여 상하이와 일본에서 활동한 과격한 사람들로, 허무주의와 아나키즘이 혼합된 초기 아나키스트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숭배한 것은 종족적 증오심과 폭력에 대한 찬양으로서 양본래의 아나키즘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상하이 중국 교육회 회장인 차이위안페이 역시 일찍부터 아나키즘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가 「아사경문」에 발표한 소설 〈신년몽新年夢〉(1904년 2월)은 아나키즘 색채가 매우 짙은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이상사회를 통해 국가·정부·사유 재산·군비의 폐지, 성씨·가정·혼인·법률의 폐지와 언어문자의 통일을 주장한다. 그가 그린 이상사회는 중국 아나키스트들이 훗날 제시한 이상향과 거의 일치한다. 근대 중국의 대표적인 교육가이기도 한 차이위안페이의 사상에 아나키즘 색채가 짙다는 데 이미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그를 ‘철학적 아나키스트’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1903년 「소보」 사건을 전후하여 고조된 혁명의 분위기는 1905년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허무주의와 중국의 허무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혁명적 허무주의자는 러시아인 민주주의자들의 반정치적 경향과는 달리 청왕조의 전복이라는 정치혁명을 추구했다. 그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러시아의 허무주의를 받아들여 정치혁명이 임을 자신했으나 여전히 본디 아나키즘의 사회혁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울러 중국의 혁명적 허무주의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도덕 문제는 훗날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다.

1905년 8월에는 쑨원이 중심이 되어 일본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다. 이 혁명단체는 민족·민권·민생이라는 삼민주의를 혁명 강령으로 내걸고, 「민보民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 이 잡지는 삼민주의 외에 국수주의나 아나키즘도

선전했다. 아나키즘관련기사가이잡지에자주실린것은쑨원이아나키즘에호감을느끼고있었고, 장지나장타이엔과같이아나키즘성향이 짙은사람들이편집을맡고있었기때문이다. 쑨원은평소“동물계는경쟁이원칙이며, 인류는호조가원칙”이라는절충적관점을제시함으로써아나키즘에친근감을보였으며, 장타이엔도사회진화론을비판하기위해상호부조론에큰관심을가졌다.³⁷ 이잡지에서공화주의자와아나키스트가논쟁을벌이기도했다. 여기에실린글들을보면, 공화주의자가아나키즘을이해하는수준도과거와달리비교적높은편이었다. 어쨌든이즈음일부동맹회원들이러시아허무당원과같은테러활동을수차례벌여중국전역을떠들썩하게했다.

중국인에게아나키즘의수용은이론적으로볼때혁명이론의전진을의미했다. 종족주의에기초해만족정권인청왕조를타도하는정치혁명에서, 사회주의에기초해전제왕조라는군주제를전복하려는사회혁명으로나아간것이다. 앞장에서살펴본고토쿠슈스이와중국동맹회의일부혁명가들이활발하게사상을교류한시기가바로이때이므로그상황을대략짐작할수있다. 그리고그이론적탐색은「천의」와「신세기」라는두잡지에서펼쳐졌다.

2. ‘중국식’아나키즘과‘과학적’아나키즘

1906 년이일본아나키스트운동사에한획을그은해라면, 다음해인 1907 년은중국아나키스트운동사에서상징적인해이다. 그해 6 월도쿄에서‘사회주의강습회’라는단체가설립되어「천의」라는아나키즘잡지를펴냈고, 같은시기파리에서는‘세계사’라는단체가「신세기」란아나키즘잡지를발간해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출발을알렸기때문이다. 두단체는보통그들이발간한잡지의이름을따서천의파와신세기파라고불리는데, 어떤사람들은활동한도시이름을따서도쿄그룹과파리그룹이라고부르기도한다. 일본이중국에아나키즘을전파한동쪽통로라면, 프랑스는서쪽통로라고할수있다. 천의파에는장지, 류스페이, 허쥔, 왕궁취안(汪公權) 등이참여했고, 신세기파에는리스쥔, 우즈후이, 추민이(民誼), 장징장(張精江) 등이참여했다.

천의파의이론적지도자가류스페이였다면, 신세기파의이론적지도자는리스쥔이다. 그런데재미있는것은류스페이가본디장타이엔과같이저명한한국학자이자국수주의자인데반해, 리스쥔은프랑스에유학해생물학을공부한자연과학자라는사실이다. 그리고류스페이가고토쿠슈스이처럼사회주의와아나키즘이적절히결합한일본아나키즘의영향을받았다면, 리스쥔은엘리제르클뤼나장그라브(Jean Grave) 와같이크로포트킨의사상을주요하는프랑스의정통아나키즘이론을수용했다고할수있다. 이런개인의특성과환경의차이는그들의잡지에도고스란히반영되었다. 우선천의파류스페이의사상을간단히살펴보자.

국민이진정으로융합하는사회를지향한다고밝혔다. 이처럼온건한태도를취하고있지만, 1907 년일본인에대한적개심때문에한인들이아주화친회에가입하지않았던것과비교한다면상황이많이달라진것이다. 아무튼일본에서한인아나키스트운동은이단체에서출발한다.

중국에서활동하던한인독립운동가들이언제부터아나키즘을수용했는지는분명하지않다. 1911 년신해혁명이일어난즈음많은한인들이중국에건너가이혁명운동에참가했는데, 그들가운데일부가아나키즘을접했을것이다. 왜냐하면 1910 년대중국사회를풍미했던대표적인사회주의가바로아나키즘이기때문이다. 1913 년중국상하이로건너온신채호는고토쿠슈스이의글은물론스푸의글도읽은것으로보인다. 또한 1917 년 8 월상하이에서건립한신규식의조선사회당은비록아나키스트단체는아니지만, 이미한인사회주의자나아나키스트가많이있었음을말해준다.

3 · 1 운동의영향으로상하이에대한민국임시정부가세워졌다. 하지만곧정치노선의차이가드러나면서민족주의진영은분열했고강경파와온건파가대립하게된다. 이즈음러시아혁명은중국에있던한인운동가들에게도영향을미쳐아나키즘이나불세비즘과같은사회주의사상이본격적으로들어왔다. 어떤사람들은이때부터신채호가이미아나키즘활동을시작했고, 그가상하이에서조직한신대한동맹단과잡지「신대한」에서아나키즘의요소를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 1920 년에베이징으로온신채호는다음해 1 월「천고天鼓」를창간한다. 이잡지는일본제국주의의악만성을비판하고, 무장투쟁과한중연합전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 여기서신채호는민족주의적역사의식과더불어제국주의와국가주의를부정하고세계대동을주장하는등아나키즘의색깔을선명히드러낸다. 심지어그는같은해에흑색청년동맹베이징지부를만들었다고도한다. 이무렵한중협회가창간한「광명光明」과텐진에서한인이발간한「투보鬪報」등도아나키즘색채가 짙은잡지라고알려져있다. 이런사실에비추어적어도 20 년대초에는중국에서한인아나키스트들이집단적으로출현했다고볼수있다.

중국내한인들이아나키즘을수용하는데는무엇보다중국인아나키스트와직접교류한것이중요한역할을한듯하다. 예를들어, 신채호는「천고」를발행할때나베이징대학도서관을이용할때중국인아나키스트리스쥔의도움을받았다. 그후에도신채호와리스쥔은계속해서두터운교분을나눈듯하다. 이러한사실은일제패망후리스쥔의도움을받아상하이에조선학전관을설립하고, 이곳에신채호학사를설치한사실에서도드러난다. 또다른한인아나키스트이을규, 이정규형제도중국인들의도움을받아아나키즘이론가로성장할수있었다. 이정규는크로포트킨의여러저작을번역한이론가로‘무정부주의연맹의필봉’이라고알려졌다. 그는이상촌건설운동이나동아시아지역아나키스트의연대에관심이많았으며, 훗날중국아나키스트가주도한각종사회운동에도적극참여했다. 이정규의형인이을규도같은길을걸었는데, 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 일부를번역했다. 또한유자명, 이희영, 정화암, 백정기같은독립운동가들도비슷한과정을거쳐아나

을전후해한인독립운동가들이여러급진주의사조를받아들였으며, 그가운데하 나가아나키즘이기때문이다. 보통한국에서는일본이나중국과는달리 1920 년대초부터본격적으로아나키즘을수용했다고본다. 그전에는일제의식민지라는 특수한상황으로말미암아정부를부정하는아나키즘사상을수용하기가어려웠다는것이다. 하지만최근이호룡은 3·1 운동이전에이미한인독립운동가들 사이에아나키즘이널리유포되어있었다고주장했다. 일본이나중국과마찬가지로마르크시즘보다일찍수용되어사회주의사상계의주류를점했다는것이다.⁵⁴ 이것이 사실이라면동아시아세나라모두 20 세기초에아나키즘을수용했다는말이된다. 그렇다면하더라도 3·1 운동을전후해한국아나키스트운동이역사의전면에등장했다는점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을것이다.

한국은일제의침략에맞설새로운사상을모색하는과정에서사회주의를수용했다. 구한말사회진화론이한때실력양성론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면서근대화 운동을이끌었지만, 1910 년국권을상실한다음에는이이론에일제의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요소가있다고자각하면서민족해방운동의하나로사회주의에주목한것이다. 식민지치하의국내한인들이아나키즘을받아들일즈음일본이나중국에 거주하던한인들도이상을받아들였다. 그런데국내보다는국외에서벌이는활동이더활발했다. 그이유는국내보다사상통제가악한국외에서아나키즘활동을 하는것이유리했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각지역한인들이어떤경로를통해아나키즘을받아들였는지일본·중국·한국의차례로간단히살펴보자.

일본에서는 1917 년러시아혁명을전후해서아나키스트를자처하는한인들(예를들어, 한광수) 이나타났다. 그들은아나키즘을포함한사회주의를선전하고 단체를만들었다. 주목할만한변화가나타난것은 3·1 운동후로, 이때부터한인 유학생모임이친목단체에서점차이념단체로발전하는경향을보인다. 특히 3·1 운동이좌절되면서개량적인민족주의운동보다는급진적인사회주의운동을선호하게되었고, 20 년대한인지식인들은사회주의를가장매력적인사상으로바라보았다.

재일한인아나키스트운동은일본아나키스트운동과밀접한관련을맺으며발전했다. 과거중국인혁명가들이고토쿠슈스의영향을크게받았다면, 한인혁명가들은그의제자오스기사카에게큰영향을받았다. 수용시기가달랐기때문에 이런차이가나타났을것이다. 20 년대초한인유학생일부가오스기사카에·이와사사쿠타로같은일본인아나키스트와접촉했고, 일본인아나키스트단체에하나둘가입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21 년 11 월에는마침내한인유학생들이독자적으로‘흑도회黑濤會’란단체를조직한다. 이것이일본에서결성된초기의대표적인한인아나키즘이념서클이다. 이단체에는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도참가한 것으로보인다.

흑도회는일본인아나키스트의지도를받아박열, 김약수, 김판권등이결성한 단체로, 기관지『흑도』를발행했다. 그들은약자인한인의동정을일본지식인들에게알리기위해잡지를발간하며이잡지는국가적편견과민족적증오없이한일양

「천의」는 1907 년 6 월일본도쿄에서반월간으로발행되었다. 「천의」의 광고에는“고유의사회를파괴하고인류평등을실행하는것을모토로삼는다. 여계女界혁명을제창하는것외에, 종족·정치·경제의여러혁명도아올려제창한다”고쓰여있다. 사실「천의」는기본적으로여성잡지였으므로, 그내용은상당부분아나르카페미니즘에관한것이였다. 여성해방론에관한기사는주류류스페이의 아내인허찌이기고했다. 그녀는남성에대한적개심을내세우며, 여성의노동참여나참정문제에반대하는독특한관점을제시했다. 심지어초혼인남자는초혼인여자와, 재혼인남자는재혼인여자와결혼해야한다는등의극단적인평등주의를주장하고고토쿠슈스이와가벼운논쟁을벌이기도했다. 하지만그녀의글은상당수가남편인류스페이의도움을받아쓴것이였으며, 이잡지에가장많이기고한사람도류스페이였다.

「천의」에실린류스페이의글에는고토쿠슈스의영향이적지않게드러난다. 그는고토쿠슈스이처럼제국주의비판에많은관심을보였고, 나아가서양의자본주의문명전반에대해강한회의를드러냈다(그는중국인으로서처음으로반제국주의를주장했다). 그리고노동자와농민을동정했으며, 의회주의와보통선거를반대했으며, 총동맹파업과같은혁명방법을지지했다. 이른바‘강종強種’과‘약종弱種’의논리를만들어, 아시아와유럽의사회혁명이가연합해아시아각민족의해방을이루고유럽의부르주아정부를함께타도하자고주장하기도했다. 고토쿠슈스이의사상에마르크스주의와아나키즘이혼재되어있듯이, 류스페이역시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를뚜렷하게구분하지않았다. 「천의」에『공산당선언』의일부를번역해실은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 대체로마르크스주의에호의적이였다.

류스페이의아나키즘은크로포트킨의사상에바탕을두었다는점에서동아시아의다른아나키스트들의사상과유사하다. 그는스펜서(Herbert Spencer) 나 허슬리(Thomas Henry Huxley) 의사회진화론이제국주의이데올로기의하나임을간파하고, 상호부조를중심에두는크로포트킨의사상을가장원만한사상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그는모든사물은상대적이며중심이존재하지않는다는‘무중심설’에기초해자신만의‘인류균력설(人類均力說: 개인이여러가지재능을끌고루재능을갖추는것)’을펴기도했다.³⁸ 또한바쿠닌, 슈티르너, 톨스토이의아나키즘에도흥미를보임으로써아나키즘이론에좀더개방적인모습을보였다. 특히국수주의자시절부터계속루소의평등론에관심을기울였는데, 평등권이자유권이나독립권보다우선한다고생각했다. 그는심지어인류의평등을위해서라면개인의자유를어느정도제한할수있다는논리까지폈다.

류스페이가일본아나키즘의영향을받은것은분명하지만, 그는나름대로아나키즘을재해석하는창의성을발휘했다. 그는「천의」에서국수주의와아나키즘을결합한독특한관점을제시했다. 고대중국학술에관한풍부한지식을응용해독자적으로아나키즘이론을풀이한것이다. 예를들면, 중국고대사상가노자를중국아나키즘의창시자로보았고, 허행(許行)·포경언(鮑敬言)·이탁오(李卓吾)

등을 전통시대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했다.³⁹ 또한 그는 국학(國學)과 관학(官學)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중국의 전제정권을 비판하는 동서양의 자본주의 제도도 비판했다. 심지어 서구의 부르주아 문명보다 중국의 고대 사회가 아나키즘 이상에 더욱 가깝다고 보아 이를 미화했다. 이처럼 그의 아나키즘에는 전통주의적 요소가 풍부하게 녹아있었다.

일본 아나키스트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만큼 천의파의 운명은 일본 아나키스트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아나키스트 운동이 침체하자 천의파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장지가 이른바 옥상연설 사건 때문에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하자, 사회주의 강습회는 해체되었고 「천의」도 폐간되었다. 류스페이가 다시 「제민사(濟民社)」를 만들고, 「형보(衡報)」라는 신문을 발행했으나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류스페이가 갑자기 양강독인 두안팡(端方)에게 투항함으로써 결국 천의파는 몰락하고 만다. 왜 류스페이가 아나키즘을 버리고 ‘변절’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다. 그의 아내 허편의 친척인 왕궁취안의 유혹 때문이라고도 하며, 류스페이의 성격과 환경 요인들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서양의 물질문명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류스페이가 국수를 권장하던 두안팡에게 투항했다고 풀이할 수도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아나키즘이란 처음부터 국학의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제한적인 의의를 지니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가 “중국 국수의 존망은 무정부 공산주의의 실행에 달려 있다”⁴⁰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류스페이의 아나키즘이 국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류스페이의 사상의 특징은 국학과 혁명이 결합한 것으로, 전통적 평균(平均) 사상과 근대적 평등 사상을 한데 섞은 절대 평등의 유토피아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의 아나키즘을 ‘중국식 아나키즘’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전통주의적 해석법은 신세기파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중국식 아나키즘은 아나키스트 운동의 비주류를 형성해 그 후에도 꾸준히 나타난다. 타이쉬(太虛)의 불교와 아나키즘의 결합, 주치엔즈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타포(太朴)의 중국적 아나키즘, 징메이지우(景梅九)의 『학회(學彙)』 등에 나타난 아나키즘 해석 등이 이 흐름에 속한다. 이러한 성격의 아나키즘은 신채호가 ‘조선식 아나키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기억할 만하다. 사실 류스페이와 신채호의 아나키즘에는 비슷한 점이 많고 따라서 두 사람의 아나키즘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천의파와 함께 중국 아나키즘의 또 다른 출발점인 신세기파는 리스펑의 주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조직되었다. 프랑스는 아나키스트 뿌르동(푸르동의)의 고향이자 바쿠닌, 크로포트킨과 같은 저명한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하던 곳이다. 1880년대 이후 크로포트킨의 친구이자 제자인 엘리제르 클뤼와 장 그라브는 아나르코 코뮤니즘 운동을 주도했다. 르클뤼는 “진화는 곧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아나키즘을 해석한 인물로, 평생 채식주의를 실천한 청교도적인 혁명가이다. 또한 그라브는 프랑스 아나키즘을

신문화 운동이 한창일 무렵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사회혁명을 실현하는 더욱 실제적인 방법의 하나로 노동 운동에 눈을 돌려 노동자에게서 혁명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 물론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제 1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러시아 혁명의 성공이 그들에게 좀 더 투쟁적인 실천의 장으로 눈을 돌리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문화 운동을 지식인만의 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제창했다.⁵³ 그러면서 점차 운동의 무게 중심이 문화에서 경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본디 그들의 문화 혁명론이 가족과 국가, 삼강과 봉건 계급 질서, 공자와 종교, 여성과 경제 자립, 국수문자와 봉건 문화 등의 주제를 결합해 설명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및 경제 혁명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5·4 사건으로 촉발된 5·4 운동은 다른 사회사조와 마찬가지로 중국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5·4 운동은 중국 아나키즘의 전성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이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불세비즘이 중국에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아나키즘과 불세비즘을 구분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있었고, 이들이 함께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점차 균열이 생긴다. 아나키스트에게 매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인데, 특히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을 창립할 무렵 그 갈등은 정점에 이르러 아나·불 논쟁이 일어났다.

1919~1921년에는 진보진영 안에서 사상 논쟁이 벌어져 자유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마르크시스트가 각자 정치색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길을 걸기 시작했다. 문화 혁명의 기치 아래 모였던 이들이 정치 노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갈라선 것이다. 이때 아나키스트 또는 아나키즘적 성향을 띤 지식인들도 나름대로 현실 정치에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은 곧바로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게된다. ‘구망도존(救亡圖存)’의 위기의식 아래 형성된 정치적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제 3 장 한국: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

1.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한국 독립 운동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출발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

부터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황링수(黃鈴壽)는스푸가창간한 「민성」에참여한바있으며, 어우성(吳省)바이도스푸가만든「광저우무정부주의동지사」의일원이었다. 이들은 「자유록」을발간해젊은이들에게아나키즘을전파했다. 또다른아나키스트 위안썬잉(袁振英) 역시광둥인으로홍콩에서아나키즘활동을한바있으며, 베이징대학에서황링수(黃鈴壽), 어우성(吳省)바이와함께활동했다. 베이징대학을중심으로전개된신문화운동에상하이나광저우에서활동하는스푸의제자들이대거참여한데서, 민성파아나키스트들이북상해옛신세기파와결합했음을알수있다. 졸업후황링수(黃鈴壽)는계속베이징에남아활동했고, 어우성(吳省)바이는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본거지인광저우로돌아가활동했다.

신문화운동의대표적인잡지 「신청년」에적지않은아나키스트글이실린사실도신문화운동과아나키즘의밀접한관계를보여준다. 또한아나키스트는아니지만 「신청년」의주요필자로서신문화운동을이끌었던천두수(陳獨秀), 리따자오(李達), 시엔시엔통(錢玄同), 저우쭈어런(周作人), 루쉰(魯迅)의행적과그들의글들을분석해보면거의예외없이아나키즘의질은흔적을찾을수있다. 그들이내세운우상파괴정신과반국수주의정신은중국아나키스트의반권위주의정신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

그후베이징은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중심지가되었으며, 점차전국적으로세력이확대되어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를구가한다. 상하이에서발간한 「진화進化」나광저우에서발간한 「민풍民風」은대표적인아나키즘잡지이자신문화운동의선전지였다. 그밖에전국각지에서수십가지의잡지가출판되었고, 50 여개의아나키스트단체가활동했다고한다.⁵¹

당시에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가등장한것도흥미로운일이다. 예를들어, 베이징대학학생이던주치엔즈는「분투」라는잡지에서허무주의철학에기초해개인의분투정신이야말로최고의가치라고주장하면서, 개인의절대자유에다르기위해서는우주에존재하는모든조직을뒤집어버려야한다는이른바우주혁명을제창했다. 그는과학과혁명을대립관계로설정해논리를전개한다. 즉아나르코크뮤니즘과불세비즘은과학임을내세우지만, 실은돌다철저하지못한혁명이라고비판했다. 그는과학의시대이미끝났고과학은하나의권위에불과하므로, 본능의충동에따르는혁명철학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그의분투파는아마도중국인가운데가장먼저불세비키를비판한그룹일것이다.⁵²

중국아나키스트들이기존체제의가장근본적인변화를추구하는급진성을보인다는점에서는다른나라의아나키스트운동과일치하지만, 전통문화와관련해나타나는강렬한문화주의의식은주목할만하다. 소위전통문화에강하게집착하는태도는어설피프게나마전통과아나키즘을지속적으로결합하려는시도(천의파)나그와반대로극단적인단절을주장하는배타심리(신세기파)로표출된다. 아나키즘은기본적으로반전통의성향을강하게띤다. 따라서신문화운동시기에제기된반전통의주장에아나키스트가적극적으로가담한사실은그리놀라운일이아니다.

대표하는잡지 「신세기」의편집자로서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과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선전했다. 1907 년무렵은프랑스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였으며, 르클뤼와그라브가해석한크로포트킨의사상과아나르코생디칼리즘은중국인유학생들에게영향을미쳤다.⁴² 그결과신세기파가탄생한다. 당시중국인자본주의가아직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유학생들은생디칼리즘보다아나르코크뮤니즘에더큰관심을기울였다.

신세기파의이론가리스썬(李斯鵬)을중심으로그들의사상과활동을살펴보자. 리스썬은1902 년장징장과함께프랑스에유학해서농업실용학교에입학했다. 졸업후파스테르학원에서생물학과화학을공부하면서대두에관한논문준비하던중그는엘리제르클뤼의조카인폴클뤼의소개로크로포트킨의사상과프랑스의혁명철학을받아들였다. 그는우선채식주의를실천하고육체노동을하면서아나키즘윤리에따른검소한생활을했다. 또한대두식품에관한연구를마치고직접두부를생산하기위해두부공장을차렸다. 이때부터중국인노동자들과함께‘일하며공부한다’는아나키즘의교육사상을실천에옮겼다. 리스썬은얼마후 「소보」 사건때문에런던에망명중이던우즈후이와일본에서건너온청년추민이등과뜻을모아‘세계사’라는아나키스트단체를조직한다. 장징장이이들의활동을경제적으로지원했고, 당시독일에서공부하던차이위안페이도협조했다.

세계사에서떠난잡지가바로 「신세기」이다. 이잡지의이름이프랑스판 「신세기」와같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이들은프랑스아나키스트들에게도움을받았고, 일부기사는프랑스판 「신세기」에서발췌한것이였다. 한편그들은같은시기에화보집 「세계」를펴내서양의물질문명을소개하는데도적극적으로앞장섰다.

「신세기」에서리스썬은자유·평등·박애·대동·공도公道·진리·개량·진화 등의개념들을이용해아나키즘을설명한다. 그는아나키즘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먼저기존질서에서저항할것을호소했다. 그리고구체적인공격대상으로군국주의·가정주의·사산私産주의·종교주의를꼽았다. 그는이다섯가지를강권주의라는용어로정리하고, 강권주의에반대하는것이바로자신들의아나키즘이라고요약했다. 다른글에서는종교·전통·가족·방종·엘리트·통치·군벌·국가에반대할것을주장하고, 자유·과학·인도·혁명·공산·국제등에찬성한다고선언하기도했다. 여기서보듯, 신세기파의아나키즘은정부나국가에대한혁명외에도가족, 종교, 전통에대항하는문화혁명을강조한다.

리스썬은“어떤형태든상관없이모든정부는자유와평등의적”이라고비난했다. 이른바정부라는것은인민의대표기구가아니라이로운법률을마음대로제정해서사회를운영하고이를국가라고부른다는것이다. 따라서정부란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기관일뿐이며, 정상적인사회를파괴하는근본원인이라고보았다. 같은맥락에서부르주아정부도비판했다. 즉자본주의란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는구조이고, 이를비호하는기관이정부인데, 정부는곧국가를대표하므로결국부르

주아정부도특권층이이익을독점하고인민을해치는‘만악의근원’이라는것이다. 하지만그가가장먼저타도할대상으로지목한것은청왕조였다.

리스펑은청왕조를전복하는것이야말로중국이나키즘혁명의시작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그는만주족과한족이대결하는종족주의구도에서반청혁명을주장한것이아니라, 황제체제를타도한다는맥락에서반청혁명을제창했다는점에서중국동맹회의혁명파와는달랐다. 그가배만排滿혁명이아닌배황排皇혁명을주장한것은황제체제라는군주제가인간의자유를억압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나아가리스펑은부르주아정당정치와의회정치도부정했다. 절대소수가대다수의평민을통치하는것이전제정치라면, 대의제정치는다수의지배계급이전체평민을지배하는것이므로어느면에서는더욱독재적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공화주의혁명은정치혁명이고아나키즘혁명은사회혁명이라고구분해, 전자보다후자가더근본적인혁명이라고보았다. 배황혁명이배만혁명보다우월하다는논리와사회혁명이공화혁명보다우월하다는논리는결국순원의삼민주의를비판하는데로나아갔다. 하지만신세기파의중국동맹회비판은어디까지나동지적관계에바탕을둔것으로, 류스페이의천의파가중국동맹회의주도권을장악하려고시도했던것처럼적대적이지는않았다.

리스펑의아나키즘은원론적인아나키즘에비해아주접진적인실천방법을내세웠다. “혁명이란진화의연속”이라는르클뤼의해석을받아들인그는진화와혁명을동일한것으로단지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라고믿었다. 이런유연한해석아래왕조혁명과아나키즘혁명사이에서사회발전의한단계로공화혁명과같은과도기혁명이필요할수도있다고생각했다.⁴³ 그래서“정치혁명을수단으로, 사회혁명을궁극으로”라는표현이등장했다. 곧바로아나키즘혁명을추구하지않은그의온건한태도는혁명수단에서도나타난다. 그는테러와폭동또는총파업과같은행동주의를취하기도하지만, 아나키즘에대한선전과교육을통한장기적인혁명을더 선호했다. “아나키즘혁명은교육으로혁명을이루는것”이란신세기파의구호에서도잘나타난다. 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결합을핵심으로하는리스펑의교육사상은그후대규모의교육운동과유학운동으로발전한다. 이운동은지식인과노동자를차별하는전통사회의오래된악습을치유하는데영향을미침으로써, 근대중국의지식인사회에깊은인상을남겼다. 리스펑의이러한사상은우즈후이에게서큰영향을받은것이다.⁴⁴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군국주의와조국주의에반대했을뿐만아니라부분적으로는제국주의에대한비판의식도가지고있었다. 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그들이가장큰관심을기울인것은중국의혁명문제였다. 큰리이반아들인프랑스의아나키즘이론가운데정치와경제논리는대부분직수입된것으로중국사회의현실에비추어다소설득력이부족했던반면, 문화사상은매우독창적인것이었다. 사실과학주의에기반한반전통의급진적문화론은신세기파의한가지특색이다. 이것은공화주의자들과뚜렷이구분되는점이기도했다.

위들역시국가못지않게중요한타도대상이된다. 따라서그들이문화운동에참여한것은전혀이상할것이없는, 자연스런현상이다.

1915년「신청년」의창간으로시작된신문화운동은중국현대사에서새로운이정표가된사건이다. 이시기옛신세기파의구성원이었던리스펑, 우즈후이, 차이위안페이등은국내에서유법근공검학운동(留法勤工儉學運動: 프랑스에학생과노동자들을유학보내는운동)을전개해스푸사후구심점이없었던중국이나키스트운동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다. 이운동은민국초기부터꾸준히전개된유학운동인데, 문화교류과정을통해중국사회에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널리알렸다. 그리고제1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이승리하자, 적자생존이라는독일식논리를상호부조라는프랑스의논리가이긴것으로받아들였다. 이에따라민족주의와국가주의신념이흔들렸고, 특히부르주아민주주의에실망하고자본주의체제에회의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 옛신세기파는앞의유학운동외에중국과프랑스에대학을설립하기도했다. 이런그들의활동은민국시기아나키스트운동의한특색을이루었으며, 20년대후반에는상하이노동대학을건립하는것으로이어졌다.

베이징대학의개혁은신문화운동을대표하는또다른사건인데, 옛신세기파와청년아나키스트들은여기서도활발한활동을펼쳤다. 차이위안페이가베이징대학총장이된후널리선전한‘노동’과‘호조互助’사상은말할필요도없이아나키즘색채가농후한것이였다. 스푸도아나키즘이란노동과호조일뿐이라고지적한바있다. 호조란용어를중국에들여온인물은리스펑으로, 그의『호조론』(‘상호부조론’을가리킨다) 번역본은중국의각종잡지에여러번연재되어큰호응을불러일으켰다. 과거옌푸의『천연론』이민족의자강보존에주력했으나윤리와도덕의식의진화문제를소홀히다루었다면, 리스펑의『호조론』은진화과정에서혁명의의의를강조하고, 인류의도덕문제를강조한점에서거리가있다. 이러한상호부조주의는당시사상계를지배하던경쟁적민족주의즉사회다원주의를비판할수있는요소를가지고있었다. 그후중국각지에서호조란이름을단사회단체나잡지들이등장한것은이새로운사상이얼마나광범위한지지를받았는지를보여준다.

노동이란용어역시지식인과노동자의신분차별을철폐하려고한것으로, 이개념의중심에는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결합을의미하는크로포트킨의교육철학과톨스토이의범노동주의사상이자리잡고있었다. 뿐만아니라이즈음중국사회를풍미했던신촌新村주의·공독工讀주의·공학工學주의사조역시유법근공검학운동은물론호조와노동의정신과도밀접한관련이있었다. 청년아나키스트들은이런일련의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당시베이징대학은차이위안페이의요청으로리스펑과우즈후이를교수로초빙했고, 대학안에북경대학동학검학회, 진덕회, 실사實社, 분투사奮鬪社, 북대세계어연구회등아나키즘색채가 짙은소단체가연이어조직되였다. 이가운데전형적인아나키스트모임인실사의주요멤버황링수앙과어우성바이는이시기를대표하는청년아나키스트다. 두사람은모두광둥인으로신문화운동이시작되기전

라브등이연합국지지파였다는사실과관련지어생각할때, 중국아나키즘의특징을이해하는데암시하는바가많다.

스푸의민성파는비록소수였으나매우결속력이강한조직으로, 위안스카이독재아래서거의유일하게생존한혁명파집단이다. 위안스카이정부의탄압때문에쑨원의국민당과장강후의사회당이해산한후에도스푸의민성파는여전히살아남아교육운동(주로에스페란토어전파활동)과노동운동분야에서일정하게사회주의운동세력을유지했다. 스푸의죽음으로중국아나키스트운동은잠시침묵상태에들어갔으나오래지않아신문화운동시기에다시역사의전면에등장한다.

스푸가후대에미친가장큰영향은희생적이며정열적인실천활동그자체에있었고, 그강한이미지는 5·4 운동시기에청년아나키스트들의모범이되었다. 훗날청년아나키스트황링송양은“스푸선생은우리의선각이며, 우리는스푸선생의제자들”이라고공개적으로선언한다. 한마디로스푸주의는「신세기」아나키즘을재해석한것이라고말할수있으며, 그의사상은청말아나키즘과신문화운동시기의아나키즘을잇는가교역할을했다고평가할수있다.

4. 스푸의학생들과신문화운동

스푸의죽음을전후해중국사회는중요한변화를겪는다. 대외적으로는유럽에서발발한제 1 차세계대전의결과로청말이래중국지식인들이미고있던사회진화론에근본적인회의가일어났다. 이로인해적지않은지식인들이적자생존식의진화론에의문을품고, 그가운데일부는상호부조의진화론즉크로포트킨의사상을받아들였다. 대내적으로는공화정치에대한실망감과위안스카이독재및군벌정부의등장이많은사람들에게정치에대한절망감을심어주었다. 당시중국의진보적인지식인들은총체적인사회문화의변혁이없는한결코민주국가의이상을달성할수없다고믿게되었다. 그들은중국이절실히필요한것은단순한사상개혁이아니라사회윤리적토대의근본적인혁신이라는데공감했다. 더욱이진보적지식인들에게옛권위와투쟁하는것은더이상관념적이고추상적인문제가아니라현실경험에기반한실제적이고직접적인것이었다. 이런분위기에서신문화운동이일어난다.

신문화운동시기중국아나키스트의특징가운데하나는정치문제를토론하는것을피하고주로도덕이나교육문제와같은문화운동에전력했다는것이다. 여기에는현실정치의존재를부정하는아나키즘본래의특색외에도군벌정부의압력또한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이다. 하지만아나키즘이종합적인사상체계이고, 무정부무국가만이그들의최고목표가아니며, 본래인간의자유를방해하는모든권위에서저항하는사상이라는사실을염두에둔다면, 가족이나종교와같은문화적권

신세기파는종교란일종의미신이며과학적근거가없는것이라고생각했다. 따라서아나키즘에입각한교육을통해종교의가치체계를대체할새로운도덕체계를갖추자고주장했다. 그리고그들은전통사회의기본단위인가족을「만약의근원」이라고보았다. 따라서봉건가족제도의지주인예교와삼강육리를가혹하게비판했다. 심지어공자를중심으로하는유교문화에대한혁명을주장했다. 그들은절대적권위를누리던공자에대해근대중국에서처음으로본격적인비판의포문을연사람들이되었다. 신세기파는중국인의가장큰결함은전통문화에대한과대망상에있다고생각했다.

신세기파는중중아나키즘사회를전통용어를써서대동大同사회라고표현했지만, 여기서대동사회란전통적인의미의대동사회와는전혀다른, 과학기술이고도로발달한미래사회를의미했다. 사실그들은근대중국에서과학주의를처음으로소개한집단으로도유명하다. 그들이선전한과학주의의핵심은 19 세기말~20 세기초에전세계를풍미했던서양의진화론이다. 그러나그들은기존에유행하는사회진화론이아니라진화론을새롭게해석한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을받아들였다.

동아시아사회가진화론을수용한것은한마디로혁명적인사건이었다. “천천은불변한다”는중국의고대철학과는거꾸로“만물은변화한다”고주장한서양의진화론은중국인의세계관을뒤엎어놓는다.⁴⁵ 옌푸(嚴復)가『천연론天演論』에서처음소개한약육강식적자생존의사회진화론사상은약자였던중국인의각성을요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어, 곧바로제국주의론으로연결될여지는적었다. 오히려변법파뿐만아니라공화파혁명가들이이를받아들여민족의식의자각과분투를주장하는민족주의사조가등장한다. 하지만시간이 지나면서사회진화론은제국주의의침략에적절한대응방안을제시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중국의위기는스스로세계의대세에적응하지못한필연의산물이라는결론으로나아감으로써부정적인결과를낳았다. 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등장한것이바로상호부조론이다.

신세기파가받아들인상호부조론은본디스펜서의사회진화론을비판한진화론의수정이론으로, 자연계나인간사회에서적자생존의원리보다상호부조의원리가더욱중요한요소를강조한다. 이학설은사회주의성격을띠고있어제국주의의위협에대항하는국제적민중연대라는반제의논리를제공했다. 따라서제국주의를비판하려는사람들에게는매력적인이론이었다. 상호부조론은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종족주의감정에기초한민족주의혁명을넘어서군주제와제국주의문제에대한극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데까지나아갈수있도록뒷받침해주었다. 이처럼중국에서는상호부조론이일본에비해더욱결정적인영향을발휘한듯하다.

「신세기」가선전한아나키즘사상, 즉크로포트킨의아나르코코뮤니즘은중국아나키즘을대략적으로보여준다. 사실근대중국의아나키스트운동이론은신세기파에서기원해그범위를크게넘지못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다음절에서소개할스푸가중국아나키스트의전형으로서나름대로독특한색깔을보여주는

했지만, 그의아나키즘역시 「신세기」에뿌리를두고있다. 이잡지에서리스펑이 주로서양의아나키즘이론을번역소개하거나가족·삼강·여성과같은문제에관심을기울였다면, 또다른이론가인우즈후이는주로과학주의와세계어를선전하고국수주의를공격했다. 특히우즈후이는비아냥거리는어투로논적을비판하는데탁월한재능을보였다.

여기서우리는천의파의‘평등’적세계관과신세기파의‘대동’적세계관사이에는아나키즘을해석하는방식에서근본적인의식의차이가존재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즉천의파의평등개념이전통적인평균의관념에서왔다면, 신세기파의대동개념은전통적세계관을역전시킨것이였다. 천의파의평등사회가전통시대도가의이상사회를모델로한것이라면, 신세기파의대동사회는근대적진화와진보관념에바탕을둔것으로다가올미래사회에건설될것이였다. 따라서천의파가국수와무정부를결합하려한반면, 신세기파는거꾸로‘옛것보다는지금을소중히여긴다’는기치아래철저하게국수주의에반대했다. 심지어그들은“중국문화의생사여부는국수를어떻게처분하느냐에달려있다”⁴⁶고선언했다. 이런태도는중국의한자를폐지하고에스페란토어로바꾸자는문자혁명론에서절정에이른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과학’으로‘전통’을대체하려했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삼강·공자·여성문제들에서는도교의아나키스트들과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었다.⁴⁷

신세기파는때마침프랑스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에형성되었기때문에천의파에비해이론적인수준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래서신해혁명후에도중국아나키즘의정통으로자리잡아꾸준히영향력을발휘했다. 물론천의파의류스페이가이른바‘변절’문제에연루되어정치적으로몰락한반면, 신세기파의우즈후이, 리스펑등이쑨원에적극적으로협력하여중화민국성립후중국사회의저명인사가된것역시또다른원인인것이다.⁴⁸

3. 중국아나키스트의초상 - 스푸

신해혁명은청왕조의몰락을가져왔다. 청왕조의몰락은곧신세기파가말한배항혁명의성과공화정부의등장을의미했고, 결국사회혁명의과제가남게되었다. 그런데옛신세기파의구성원들은곧바로공화정부를붕괴시키기위한투쟁에들어가지않고, “민국國을건설하면서아나키즘사회를추구한다”는점진적인길을선택하고쑨원의국민당을지지했다. 하지만그들은정치에참여하지않는이른바불관不官주의의태도를취했다. 대신스스로아나키스트라고말하면서여러가지도덕운동과교육운동을추진했다.⁴⁹ 그들이이처럼합법적인사회운동에열중할무렵 「신세기」의사상을중국본토에보급하고직접실천에열심인물이있으니, 그가바로스푸이다.

스푸는류스페이식아나키즘과달리반복고주의경향을드러내는데, 이는신세기파의과학주의적아나키즘의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그의사상이운데신세기파의영향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난것은교육을통해아나키즘사회를실현한다는혁명방법이다. 그는신문·잡지·소설·화보등을이용한노동자교육을강조했고, 노동자들의교육수준이향상되어노동조합의건설로발전하기를희망했다. 노동운동에대한그의방침은“단체를조직하고, 지식을향상한다”는간단한표어로정리할수있다. 스푸는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받아들인다. 그는아나르코코뮤니즘을실현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생디칼리즘을수용한다고설명하지만, 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의결합은나름대로스푸아나키즘의특색을보여준다. 실제로1915년3월폐병으로사망할때까지그는각종노동조합을조직하는데가장큰정성을쏟았다.

스푸가병원에입원했을때의사는치료를위해그에게육류와계란우유등을많이섭취할것을권했다고한다. 그러나심사의규약을위반하지않기위해스푸는끝까지채식주의를고집했다. 또한치료비가부족해제자들이인생기를팔아서돈을마련하려하자이를완강히거부했기에병세가더악화되었다고도한다. 스푸는자신이아나키즘과함께중국의황토에매장될뿐이라는말을남기고31세의나이에죽었다. 그의시신은저장성시후주변에매장했으며, 묘비에‘스푸묘’라는세글자와함께에스페란토어로그의생애를기록했다. 스푸와한때는쟁을벌었던우즈후이는그의사망소식을듣고, “스푸선생이있음으로써중국아나키즘의실현이수백년앞당겨졌으나, 다시그의죽음으로말미암아아나키즘의실현은요원해졌다”며크게슬퍼했다.

스푸는전통적인배만혁명가에서출발해반강권주의를주장하는테러리스트가되었다. 그리고다시도덕혁명을주장하던‘심사’시기를거쳐최종적으로는‘민성사’를중심으로아나르코코뮤니즘의이론을전파하고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실현하기위해분투하다가생을마감했다. 마지막시기에는도덕과문화문제에큰관심을기울이지않았지만, 여전히철저하게심사의규약을준수했다. 스푸는「신세기」를통해아나키즘을이해했으나말년에노동조합운동에몰두하면서신세기파와차이를보인다. 비록그의사상에독창적인관점이많지는않으나, 「신세기」의아나키즘을선전하면서조금은새롭게해석한측면이있다. 훗날제자들은그의사상을스푸주의라고불렀다.

스푸의생애를보면당시아나키즘의세계적인흐름을읽을수있다. 19세기말유럽을휩쓴암살풍조가식되하고, 20세기를전후해서는크로포트킨의아나르코코뮤니즘이주류를형성했다. 그리고얼마후다시아나키즘이노동자들에게전파되면서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세력을얻는데, 이것이시간간격을두고차레로중국에들어와영향을미쳤다. 스푸는바로이시기에살았던인물로, 이런조류의변화를골고루체험해보여준것이다. 덧붙이자면, 제1차세계대전에참전하는문제를두고유럽의아나키스트들이반전파와연합국지지파로분열했을때, 신세기파와스푸는연합국을지지하는입장을취했다. 이런태도는크로포트킨이나르클뤼, 그

둘러싼서신논쟁이일어났다. 스푸는이들의정치참여가“아나키즘을위해통국을금할수없는사건”이라며아쉬움을표시했다. 그는이즈음개인의도덕계몽만으로는아나키즘이상사회에이를수없으며, 아나키즘원리를소개하고전파하는일이절실하게필요하다고생각했다.

결국스푸는 1913 년 8 월광저우에서「회명록晦鳴錄」(일명‘평민의소리’라고도부른다) 이라는잡지를펴낸다. 3 호부터는제목을「민성民聲」으로바꾸어사회혁명과세계대동을주장했다. 이잡지는중국어와에스페란토어두부분으로구성되었는데, 한편으로는국제아나키스트운동의흐름을소개하고, 다른한편으로는민국초기에유행하던사이비사회주의이론을비판했다. 이때부터보통회명학사를민성사라고부르는데, 위안스카이정부의탄압이계속되자마카오나상하이등지로출판장소를계속 옮겨다녔다. 스푸가제 1 세대아나키스트인신세기파와결정적으로다른점은아나키즘의원칙을충실하고수해공화정부자체를부정했다는것이다. 그는어떤정치권력과도타협하지않았으며, 오직순수한사회혁명을추구했다.

스푸는「민성」에서아나키즘과다른사회주의의차이점은무엇인가, 아나키즘사회혁명의수단과방법은무엇인가라는문제에답하기위해애썼다. 첫째문제에서그는우선아나키즘과아나르코코뮤니즘의개념을규정한뒤, 마르크스적공산주의를권위주의적이라는관점에서비판했다. 뿐만아니라쑨원의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가운데주로민생주의가해당된다) 나장강후의삼민주의(무정부·무종교·무가정의의미한다) 는물론중국사회당원들이주장하던순수사회주의, 진정사회주의, 극단사회주의, 무치無治주의, 무정치주의와같은모호한사회주의개념도비판했다. 그의비판은어디까지나‘동류이파同類異派’의우호적인관점에서있었지만, 전통주의와아나키즘의결합과같은절충적관점에대해서는가차없이비판했다. 스푸의아나키즘은한마디로코포트킨주의였으며, 사회주의이론에대한그의이해는당시로서는가장수준높은것이였다.

스푸가제시한사회혁명의방법은〈무정부공산당의목적과수단〉이라는글에나타난다. 여기서그는첫째, 신문·서적·연설·학교등을통해우리의사상을일반평민에게전파하고……, 둘째, 선전시기에는상황에따라두가지수단을사용할수있는데, 하나는세금납부나병역을거부하든지파업을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암살과폭동과같은방법을사용하는것이다……, 셋째, 전파가성숙해지면대중봉기를일으켜정부와자본가를타도해현사회를전복시키는데, 이것이평민대혁명이다……, 넷째, 평민대혁명은곧세계대혁명으로각국의혁명당과연합해일국의범위를넘어서는것이다. 또한국제아나키스트연맹에보낸다른글에서는 1) 국제적조직결성, 2) 동아시아지역에서사상을전파, 3) 노동조합과같이행동할것, 4) 국제적인총파업, 5) 에스페란토어채용등을주장하고있다. 이처럼나름대로거창한애기를하고있지만실제로는중국의현실을감안해주로사상을전파하는데주력했다. 또한그는아나키즘혁명을이야기하고있기는하지만중국의혁명에대해서는거의언급하지않고있다.⁵⁰

스푸는일반적으로중국현대사에서가장전형적인아나키스트라고평가받는인물이다. 그는어린시절체계적으로전통교육을받았으며, 1899 년 15 세때시험에합격한수재였다. 그러나과거제도를혐오한그는과거를포기하고사회활동에참가한다. 1904 년일본에유학해이듬해에중국동맹회에가입했는데, 이즈음일본아나키즘과러시아허무주의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특히고토쿠슈스이의저작을읽고깊은감명을받았다고한다. 또한이시기에그는암살활동에매료되어러시아인에게폭탄제조기술을배웠다. 1906 년중국동맹회는중국현지의봉기를계획하자광저우에스푸를파견해그준비업무를맡겼다. 그는얼마후친구와함께향산여자학교를세워여성교육운동을전개하는한편, 1907 년에는광저우에서청왕조의고위관리리준(李準) 을암살할계획을세운다. 그러나폭탄을제조하던중실수로폭약이터져한쪽팔을잃는큰부상을입고체포되어 1909 년까지향산감옥에수감되었다.

스푸는감옥에서불교관련저작과「신세기」와같은아나키즘잡지를읽었다. 그는독서를통해아나키즘에흥미와지식을가지게되었으나, 여전히강렬한민족주의성향을띠고있었다. 당시그가감옥에서쓰글을보면류스페이와유사한국수주의자의모습이나타나흐미롭다. 그는불교의교리, 제자학이나문자학에관심을보였고, 유교를신랄하게비판했다. 특히송명이학宋明理學과강유웨이의공교론孔教論을비판하면서고대사상의부흥을기원했다. 이처럼국수주의와아나키즘사이엔밀접성이존재했다는사실은근대중국의독특한정치문화환경에서비롯한것이다.

출옥후부터신해혁명전까지스푸는두가지활동을펼쳤다. 하나는「신세기」에서선전하아나키즘을연구한것이고, 다른하나는암살활동에적극참가한것이다. 1910 년봄, 그는홍콩에서지나암살단을조직했는데, 모든강권에반대한다는목적을내세웠다. 이시기그는이미중국동맹회에서탈한상태였으나, 완전히아나키스트로전향한것도아니었다. 1910 년겨울왕징웨이(汪精衛) 등이청왕조의섭정왕을암살하려다실패하고체포되자, 스푸는이계획을다시실행하기위해베이징으로잠입하려했다. 하지만베이징진입이삼엄한경비로불가능해지자잠시계획을연기하고다시광저우로내려와반청봉기를준비한다. 1911 년 3 월에일어난광저우봉기가수군제독리준의진압으로실패하자, 스푸는리준을테러해암살하는데성공했다. 같은해 9 월에는청왕조가광저우에파견한만주족장군도암살했다. 그러나우창봉기가일어나고신해혁명이성공한후에는전제정부가전복되었다고판단해암살활동을중지했다. 그리고 1912 년봄암살단을해체한스푸는아나키즘도덕원리를알리고실천하는활동에주력함으로써본격적으로아나키스트의길을걷기시작했다.

1912 년 5 월, 스푸는광저우에서사회혁명을선전하기위해‘회명학사(晦鳴學畧: 회명은시경정풍편에나오는’비바람이렇게어두워도닭의울음은그치지않는다’는시구에서따왔다고한다)’를조직했다. 여기에는류스신(劉石心)·쑹비안(鄭彼岸)·쑹페이강(鄭佩剛) 등이참여했다. 그들은함께노동하고학습하는

생활을 계속했고,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작업을 직업으로 인식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 아나키즘을 전문적으로 선전한 최초의 단체다. “몇 년 전에 「신세기」에서 뿌린 종자가 (마침내) 혁명 학사를 통해 가꾸어지고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스푸가 만든 상하이 무정부 공산주의 동지사를 비롯해 창수 무정부 전파사, 난징 무정부 토론회, 광저우 무정부 공산주의 동지사 등 아나키스트 단체가 잇달아 만들어졌다. 심지어 홍콩에도 대동사 大同社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중국 아나키스트가 주도한 이발공회와 찾집공회 같은 노동운동 단체들이 출현했다.

스푸의 본래 이름은 류샤오빈이다. 배만혁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만주족을 타도하고 광복을 생각한다는 뜻을 담아 류쓰푸(劉思復)라고 개명했다가 성을 없애고 또 개명해 스푸(師復)라 불렀다. 아나키즘을 수용한 후 가족주의와 종족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성씨를 폐지하는 것은 중국 아나키스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는데, 민족 국가의 이상을 완전히 버리고 철두철미한 아나키스트가 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인 듯하다.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전복되자 한동안 낙관적인 정서가 지배했다. 아나키스트들 역시 잠시나마 새롭게 건립된 공화정부를 신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폭력 행위를 자제하고 개인 도덕의 수양을 통해 새로운 사회 도덕을 창출하려 애썼다. 1912년 2월 신세기파의 우즈후이, 리스펑, 추민이, 장징장 등은 차이위안페이, 장지등과 함께 진덕화나 육불회 六不會 같은 도덕 수양 단체를 조직했다. 스푸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했고, 1912년 7월 진덕회와 유사한 ‘심사심사社’를 조직해 도덕 계몽 운동에 동참했다. 아직까지 그는 갓 태어난 공화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며, 아나키즘 혁명 활동을 직접 실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회명학사와 심사는 중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표지였다. 두 단체는 활동 범위와 임무가 서로 달랐는데, 전자가 대외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면 후자는 개인의 도덕 수양을 강조했다. 회명학사는 공산주의, 군국주의 반대, 공단(노동조합) 주의, 종교주의 반대, 가족주의 반대, 채식주의, 언어 통일, 만국대동이라는 8가지 강령을 내세웠으며, 심사는 1) 육식을 하지 않는다, 2) 음주를 하지 않는다, 3) 흡연을 하지 않는다, 4) 용역을 부리지 않는다, 5) 가마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6) 결혼하지 않는다, 7) 족성 族姓을 쓰지 않는다, 8) 관리가 되지 않는다, 9) 의원이 되지 않는다, 10)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다, 11) (해군과 육군 같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 12)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12가지 규약을 정했다. 심사의 12 규약은 주로 개인의 도덕과 관련이 있고 회명학사는 사회혁명을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와 가족을 반대하는 데는 일치했다. 회명학사의 강령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단주의’(생디칼리즘. 여기서는 아니르코생디칼리즘을 의미한다)와 ‘언어 통일’(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두 가지 조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해혁명 후 얼마 동안 스푸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도덕 문제에 주력했다. 그의 도덕 혁명론에 관한 내용 가운데 가족 문제를 다룬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자.

스푸는 청말기에 천의 파와 신세기 파와 마찬가지로 전제 군주제와 봉건 문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통 질서의 지주인 가족에 주목하게 되었다. 심사를 성립할 무렵 발표한 〈가족주의를 폐지하자〉라는 긴급을 보며 그가 가족의 해체에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스푸는 “중국의 가정은 가정이라 일종의 암흑과 같은 감옥 일뿐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가족 제도의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혼인 혁명과 족성 혁명을 주장했다. “가족의 기원은 혼인에 있으며, 가족의 경계는 족성에 있다. 따라서 혼인을 폐지하면 가족 제도의 근원을 끊을 수 있고, 족성을 폐지하면 가족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 그 밖에도 강상명 교에 대한 혁명 즉 삼강 三綱 혁명을 주장했다. 스푸는 〈가족주의를 폐지하자〉의 후반부에 「신세기」에 실렸던 리스펑의 〈삼강 혁명〉 전문을 재수록함으로써 자신의 견이 신세기 파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부위 부강, 부위 자강, 군위 신강의 삼강은 종교적 미신 일뿐이며, 인인 人人의 평등, 부자 평등, 남녀 평등은 과학적 진리라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정 혁명, 성현 혁명, 강상 혁명 등을 제창한 것이다. 스푸는 신세기 파의 문화 혁명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도덕 계몽을 아나키즘 혁명의 첫걸음으로 삼았다.

사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철저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윤리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청말民初의 중국은 자본주의보다 봉건적인 요소가 더 강한 사회였다. 따라서 당시의 아나키스트들은 봉건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과 윤리에 먼저 비판의 칼날을 높이 들었던 것이다. 심사의 규약은 이런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회명학사와 심사를 만든 후 약 1년 동안 스푸는 「신세기」 등에 연재된 여러 글들을 모아 출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는 한쪽 팔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작성과 번역, 문장 수정과 활자 교열, 인쇄와 제본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거의 혼자서 감당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출판한 많은 서적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보냈고, 대부분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았다. 군벌 정부가 자주 명령을 내려 이런 책들의 유통을 막으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1912~1913년에 스푸는 점점 현실 정치에 강한 회의와 불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는 당시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독재 정치뿐만 아니라 자칭 사회주의를 선전하던 쑨원의 국민당이나 장강후(江亢虎)의 중국사회당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스푸는 쑨원의 민생주의에 국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쑨원이 말하는 국유화 정책을 사회주의라 한다면 청왕조와 위안스카이 정부의 국유화 정책도 사회주의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강후의 중국사회당에 대해서도, “당의 강령이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 정책 등 여러 주장이 개량적인 사회 정책만 도둑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국가 권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스푸가 가장 존경하던 신세기 파의 우즈후이나 천의 파의 장지가 정치 활동에 참여한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는 우즈후이와 장지에게 편지를 보내 현실 정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정치 참여를